금주의 법구–〈법구경〉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남의 잘못을 찾아내긴 쉬우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긴 어렵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87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4월 11일) 2022년 5월 11일 수요일



5월 8일 조계사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에서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법어를 설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본래 지닌 여래 덕성으로 세상 밝히라"

서울 조계사 등 전국 사찰
5월 8일 봉축법요식 봉행

3년 만에 펼쳐진 대규모 법석
윤석열 당선인 법회 참석 눈길
산재 유가족 · 백신 피해자 등
어려운 이웃들 헌화자로 참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사 봉축법요식에는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박재완 기자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봉축법요식이 서울 종로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코로나19 유행이 수그러들며 일상회복이 이뤄진 올해 봉축법요식은 예전 활기를 되찾아 대규모 법석으로 진행됐다.

조계종은 5월 8일 서울 조계사에서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봉행하고 부처님 오신 뜻을 찬탄했다.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운집한 이날 봉축법요식에는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를 증명으로 조계종 원로의장 학산 대원 대종사,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계 인사들의 참석도 이어졌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인수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 주호영 정각회 명예회장 등이 자리했다.

종정 취임 후 첫 봉축법요식 법석에 오른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봉축법어를 통해 "부처님은 구세(救世)의 덕과 무연대비(無緣大悲)를 갖추고 있어 중생의 고통이 있을 때는 구세대비로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비는 베풀수록 구제(救濟)의 덕화는 더욱 넓어지고, 나눌수록 중생을 요익케 하는 이타적 덕행은 깊어진다"며 "무명(無明)은 도를 이루는 바탕이요, 번뇌는 살아있는 부처를 이루는 살림살이이기에 불자 여러분도 삼독(三毒) 속에 갇혀 자기를 잃지 말고 본래부터 지닌 여래의 덕성으로 세상을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부처님오신날 봉축사를 통해 "희망이 꽃피는 환희로움이 산하대지에 가득한 부처님오신날이지만 아직도 세계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며 "지금 인류가 직면한 위기는 존재의 진실을 놓치고, 나를 위해 너를 이용하고 자연을 수단으로 여기면서 함부로 했기 때문이다. 공동체 존재라는 자각과 실천이 위기를 전환시키는 요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5월 8일 기준)도 축사를 통해 부처님 오신 기쁨을 국민들과 나눴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에서 "코로나로 중단됐던 연등 행렬이 3년 만에 다시 전국 곳곳의 거리를 밝혔고, 오늘 봉축 법요식에도 예년처럼 많은 사람이 함께해주셨다. 일상 회복의 희망 속에 맞이하는 부처님오신날이 어느 때보다 기쁘고 뜻깊게 느껴진다"고 봉축했다.

이어 "불교는 종교이기 이전에 우리 삶에 깊이 담겨있는 정신이며 문화이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서로 더 많이 배려하며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축사를 통해 "국민 여러분과 의료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불교계의 각별한 노력이 있었기에 뜻 깊은 오늘의 이 자리도 있다"며 "한국불교는 늘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국난극복을 위해 앞장서 왔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린다"고 불교계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올해 부처님오신날의 봉축표어가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이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고, 공동체를 위해 연대와 책임을 다한다면 매일 매일이 희망으로 꽃 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요식에서는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인 산재 피해자 故 이선호 씨 유족 이재훈 씨, 김두경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장과 소수자 인권 · 동물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전진경 동물권 행동 카라 대표, 이진희 · 조미경 장애여성 공감 대표가 헌화자로 참여해 희망과 자비를 전했다.

이와 함께 이날 법요식에서는 '불기 2566년 불자대상' 수상자인 최민정 쇼트트랙 선수, 함종한 헌정정각동우회장, 구자욱 프로야구 선수, 박대섭 국군예비역불자연합회장, 스롱 피아비 프로당구 선수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연등회 'Net心' 살펴보니
'희망' 키워드 최다 검색

2019년 사상 최다 인원 참여 후 3년만에 열린 2022년 연등회가 온라인상에서 최다 검색 등 트래픽을 기록했다.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를 주제로 리오프닝 시기를 맞아 열린 연등회는 온라인상에서 '희망' 키워드로 회자됐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5월 6일 국내 최대 검색사이트 네이버와 구글의 검색 분석 결과 사상 최다 검색 조회를 기록했다.

먼저 구글트렌드의 '연등회' 키워드 검색에 따르면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의 검색량을 100으로 기준 시 2018년 66, 2019년 46, 2020년 16, 2021년 20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인하여 연등회가 취소된 2021년 대비 약 5배 검색량이 증가했으며 2019년 대비 2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네이버데이터랩 검색어 트렌드 분석 결과에서도 2022년 5월 첫째 주 검색을 100으로 기준시 2018년 26, 2019년 37, 2020년 10, 2021년 8을 기록했다. 최다인원이 참여한 2019년에 대비해서도 약 2.7배 증가한 수치다.

이에 반해 2021년 언택트 연등회로 조회수 1만여 회를 기록한 연등회 공식 스트리밍의 경우 올해는 오프라인 병행으로 조회수 4000여 회를 기록했다.

3년 만의 연등회에 대한 SNS상에서도 언택트 연등회에 대한 긍정적 반응도 눈길을 끈다.

2021년 대비 5배, 긍정표현 87%
리오프닝 여행 연결한 글도 다수
부처님오신날 검색어 함께 증가

SNS 분석사이트 썸트렌드에 따르면 SNS상 '연등회'의 관련 연관어는 긍정적 반응이 전체 반응 중 87%를 차지했다. 2021년에는 긍정 표현이 73% 수준이었다.

연등회에 대한 키워드로는 '예쁘다'와 '즐기다' '좋다' 등 현장 반응을 나타내는 단어서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이와 함께 '희망' '기쁨' '평화' 등이 수위권을 차지했다.

'연등회'에 대한 언급량이 가장 많았던 날은 행사가 진행된 4월 29일로 전년 동기간 대비 언급량에 대한 증감률은 746%로 나타났다.

3년만의 연등회에 부처님오신날에 대한 인터넷 상 언급도 증가했다. 부처님오신날 언급이 가장 많았던 날은 4월 23일로, 전년 동기간 대비 언급량이 72% 증가했다.

긍 · 부정 표현 정도도 긍정적 표현이 75%로 '희망' '예쁘다' '환상적' '아름답다' '자비' 등이 꼽혔다. 다만 2021년 8% 수준이었던 '어렵다'와 같은 부정적 언어의 비중은 올해 16.5%로 증가했다. 이는 정권 교체 시점이 5월 부처님오신날 전후로 이뤄진 점과 이에 맞춰 부처님오신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사면 실행 등이 정치권에서 언급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SNS 상에서는 리오프닝 시기에 맞게 서울 볼거리와 함께 연등회를 소개하거나 부처님오신날 사찰을 함께 찾을 수 있는 여행을 소개하는 글들이 대거 올라왔다.

hj9***씨는 "부처님, 내년엔 평일에 와주세요", tjs***씨는 "가정의달 자녀와 함께 서울 1일 나들이코스, 조계사와 연등회 관람", des***씨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 한 땀 한 땀 옷을 지어 입히고 함께 연등회 참여했다" 등을 트위터에 남겼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다음 주 휴간합니다.



20돌 템플스테이, 사회공익 · 세계화 '활발'

문화사업단, 20주년 맞아 '같이나눔 템플스테이' 진행

2002년生 · 부모님 동반 등
치유 · 세대갈등 해소 '기대'
외국 단체 템플스테이 확대
유학생 · 주한대사관 예정돼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올해 20주년을 맞은 템플스테이가 사회공익과 세계화 사업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20주년을 맞아 알리는 특별템플스테이인 '같이나눔 템플스테이' 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은 12월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같이나눔 템플스테이' 를 시행한다.

개인의 마음치유 및 세대갈등 해소를 위해 열리는 '같이나눔 템플스테이' 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국민들을 찾아간다.

'같이나눔 템플스테이' 중 첫 번째 기획은 템플스테이와 동갑내기인 2002년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무살 맞이 템플스테이' 다. 청소년기를 지나 이제 갓 성인이 된 2002년생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화사업단은 동반 1인(동반인은 나이제한 없음)이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부모님과 함께 하는 라떼 템플스테이' 로, 5060부모세대와 MZ세대인 20 · 30대 자녀들이 함께 템플스테이를 체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부모 세대가 수학여행이나 수련회를 통해 경험했던 불교문화체험을 자녀들과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도록 준비했다. '부모-자식' 으로 시작해 추억과 새로움을 공유하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송광사에서 진행된 템플스테이에서 사찰 전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스페인 몬드라곤대 학생들. 사진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스무살 맞이 템플스테이' 와 '라떼 템플스테이' 는 모두 1인 3만원에 최대 1박 2일까지 체험이 가능하며 템플스테이 예약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보호시설아동,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더하기 템플스테이' 도 12월까지 계속 진행된다.

이 같은 같이나눔 템플스테이 등 문화사업단의 사회공익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도 이어지고 있다. 문화사업단은 구례군가족센터와 함께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햇살나눔 템플스테이' 를 5월 14~15일 해인사에서 개최하며, 서울노인복지센터와 연계해 '어르신을 위한 특별템플스테이' 를 오는 5월 25~26일 봉선사에서 연다.

5월 21~22일에는 순천 송광사에 '부모님과 함께하는 라떼 템플스테이' 가 열리며, 5월 28~29일 김천 직지사에서 '스무살 맞이 특별 템플스테이' 가 진행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저조했던 외국인 템플스테이도 오랜만에 활발해진 모습이다. 운영 20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템플스테이 세계화 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유관기관과 협력해 이뤄지는 외국인 단체 템플스테이가 활기를 띠고 있다.

문화사업단은 5월 3~4일 순천 송광사 템플스테이 및 지역 명소 체험을 스페인 몬드라곤대학교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순천시와 함께하는 '송광사 템플스테이+지역 명소 탐방' 은 지난 4월 배재대 외국인 유학생 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예불, 타종체험, 법고관람, 불일암 포행 등이 있었으며, 템플스테이 이후에 순천시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낙안읍성,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등 지역 명소를 탐방했다.

외국인 단체 템플스테이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4월 28~29일에는 동국대 외국인 유학생들이 마곡사를 찾아 템플스테이를 체험했다. 오는 5월 19~20일에는 외교부와 연계해 주한대사관 직원을 대상으로 봉선사에서 템플스테이가 열린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템플스테이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관련 연구결과들도 많다"면서 "이번 템플스테이 20주년을 맞아 가족, 계층, 세대를 아우르는 '같이나눔 템플스테이' 를 더해 템플스테이 사회적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돌을 맞은 템플스테이가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해 사찰, 지자체, 유관기관의 협력체계를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개교 116주년 동국대 'VISION 2040' 선포

5월 4일 개교기념식서 발표
'글로벌 TOP50' 진입 목표

조계종립 동국대가 개교 116주년을 맞아 '동국 미래 VISION 2040' 을 선포했다.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 를 비전으로 국내 톱 3, 글로벌 톱 50 대학 진입을 천명했다.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5월 4일 동국대 본관 중강당에서 개교 116주년 기념식 및 '동국 미래 VISION 2040' 선포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기념식 및 선포식은 △발원문 봉독 △비전선포식 △학교 연혁보고 △총장 기념사 △이사장 치사 △총동창회장 축사 △근속상 수여 △공로상 수여 △자랑스러운 동국불자상 수여 △자랑스러운 동국가족상 수여 등으로 진행됐다.

동국대는 이날 발표한 '동국 미래 VISION 2040' 에서 국내 3위 및 글로벌 50위 대학 진입을 위해 구체적으로 3단계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2023년~2026년 'Dongguk in the World - 미래가치 창출 및 도약' △2027년~2030년 'The World in Dongguk - 동국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 △2031년~2040년



'Dongguk beyond the World - 글로벌 미래 사회 선도' 가 진행된다.

이를 위한 전략목표로 △건학이념 - 세계적 불교 중심 대학 △교육 - 화쟁형 인재 플랫폼 대학 △연구 - 인류 지속성장 기여 연구 선도대학 △산학협력 - 미래산업 선도대학 △경영 · 인프라 - 미래가치 창출 글로벌 경영시스템 구축 등이 제시됐다.

이날 모인 사부대중은 동국대 정각원장 진명 스님의 선창 아래 "지혜 자비 정진의 교훈이 더욱 힘차게 펼쳐져서 동국대가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길 발원한다"며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동국 제2의 건학으로 새 역사를 이루고자 용맹정진 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기념사에서 "코로나19와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전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게 흘러가고 있다"며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대비하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 변화를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발표한 'VISION 2040' 을 통해 동국대가 국내 TOP3, 글로벌 TOP50이란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올해 우리대학의 개교기념일인 5월 8일은 불기2566년 '부처님오신날' 이기도 하다"며 "모두 부처님의 마음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합하여 서로 돕고 화합해 어려운 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어 "우리 학생들을 인류평화에 기여하는 올바른 인재로 양성하고, 21세기를 선도하는 세계 속 대학으로 발전하자"고 말했다.

이날 선포식에 이어 진행된 기념식에서는 8명에게 공로상을, 57명에게는 장기근속상(30년, 20년, 10년)이 수여됐다. 또 한해 동안 기부금 조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교내 구성원에게 주는 개교 116주년 기념 기금조성 공로상은 이영면 경영학과 교수 등 3명이 수상했다. 자랑스러운 동국불자상은 의생명공학과 서영권 교수 등 2명이 수상했다.

한편, 직계 3대 이상 또는 5명 이상의 동문 가족에게 수상하는 동국가족상에는 이철호(법학과 88) 가족이 선정됐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포교원, '불교 4대 명절' 소책자 발간

기존 자료에 가독성 더해, 전법중심도량 등에 배포

조계종 포교원이 신행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불교 4대 명절' 소책자를 발간했다. 수행정진 캠페인 일환으로 발간된 이번 소책자는 4대 명절의 의미와 수행법 내용을 담고 있다. 불교성전과 포교원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으로 고령화된 독자층을 감안해 보다 큰 글씨로 제작했다. 책자에서는 부처님오신날을 비롯해 출가, 성도, 열반절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기도의식 순서, 수행법이 소개되어 있다.

이번 소책자는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하여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교구본사 및 직영사찰, 전법중심도량 등 사찰 및 단체에 배포됐다.

포교원은 "사부대중 모두가 불교 4대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리이타의 공덕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이 소책자가 작은 등불이 되길 기원한다"며 "포교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보다 많은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행정진 활성화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교원이 성도재일, 출가 · 열반재일 기간 마음거울 108앱을 통한 수행정진 sns 인증 챌린지에는 1500여 명이 넘는 대중들이 참여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지난 출가열반절 진행한 수행정진 챌린지를 통해 앱 신규 설치자도 증가했다.

노덕현 기자

조폐공사, '반가사유상' 기념 메달 출시

5월 29일까지 예약판매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제78호인 '반가사유상' 을 기념메달 형태로 소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한국조폐공사(사장 반장식)은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업을 통해 '반가사유상 지폐형 기념메달' 을 출시했다. 기념메달은 금 · 은 2종으로 선보인다. '반가사유상 지폐형 기념메달' 은 6세기 후반 제작된 국보 반가사유상을 주제로 △금메달(순도 99.9%, 중량 20g) 200장, △은메달(99.9%, 10g) 2000장 등 총 2200장 한정 수량 제작된다. 조폐공사는 7월경 국보 제83호 반가사유상을 원형으로 한 기념메달도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다.

기념메달은 앞면에 반가사유상의 전체적인 앞모습을 은행권과 같은 선화로 재디자인해 표현했고, '국보 반가사유상' 글자와 영문 'Pensive Bodhisattva' 를 새겼다. 뒷면에는 '반가사유상' 의 얼굴을 확대해 깊은 생각에 잠긴 '반가사유상' 의 깨달음에서 오는 따뜻한 미소를 담았다.



기념메달은 5월 29일까지 조폐공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선착순으로 예약 판매된다.

송지희 기자

DM사업, 유아교육사업, 물류사업 총아(寵兒)

덕성기획㈜는 금번 ㈜노벨과 개미의 교육사업 부문을 인수하여 DM 및 물류, 유아교육 사업을 고객의 입장에서 언제나 한결같이 임하겠습니다.

불기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미래를 여는 덕성기획(주)
경기도 부천시 범안로 219번길 87
TEL : (02)2615-0183(대) FAX : (02)2689-3139
www.duksungdm.co.kr
▶ DM사업본부
▶ 물류사업본부
▶ 유아교육사업본부(노벨과 개미)

미래를 여는 (주)덕성C&B
직배사업부 : 서울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직배서비스 운영
TEL : (02)2615-3296(대) FAX : (02)666-3139

“선학원에게서 유치원 지키고자 명의 회수”

[인터뷰] 총림사 유치원 원기증자 조윤석 이사장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재단법인 선학원이 분원인 총림선원 토지를 일방매각한 데 이어 총림선원 창건주가 운영하던 유치원 · 어린이집의 재단 등록까지 무리하게 요구한 정황이 本紙 보도를 통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유치원은 한 재가불자가 지역 어린이 포교 활성화를 위해 총림선원 창건주 탁명 스님 개인에게 지정기탁한 것으로, 현재 원기증자가 매매계약 형태로 다시 명의를 회수한 상황이다.

유치원 · 어린이집 원기증자 조윤석 이사장<사진>은 本紙와의 인터뷰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총림선원이 아니라 탁명 스님 개인에게 기증한 것”이라며 “명의를 다시 회수해 온 것은 유치원 · 어린이집을 선학원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이라고 밝혔다.

“군포교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 결국 할머니 · 할아버지 손 잡고 절에 간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결국 불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불교가 잘 되려면 어린이 포교가 잘돼야 한다는 확신이 섰지요. 그래서 지역에 불교유치원 하나 번듯하게 잘 운영할 수 있을 비구니스님을 수소문했습니다. 총림선원과 원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탁명 스님을 떠올렸지만, 그때 당시엔 미국에 가계시는 바람에 인연이 닿지 못했어요.”

적임자를 찾기 위해 여러 비구니스님들을 만났지만 마땅한 인연이 없었다.

어린이 포교 활성화위해
탁명 스님에게 ‘지정기탁’
“가등기 약속 이행하라”는
선학원의 내용증명 ‘황당’
“개인 재산 등록 요구하는
재단법인이 어디에 있는가”



좀처럼 진전이 없던 어느 해 부처님오신날, 총림선원을 참배하러 갔다가 탁명 스님을 만났다. 인사 후 첫마디에 “유치원 하실 생각 없으시냐”고 물었다. “생각은 있지만 여력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원력이 하나로 모이자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지역 어린이포교 원력에 공감해 더 큰 정성을 보탠 불자도 있었다.

조 이사장은 “애초부터 유치원을 총림선원에 기증하려고 했으면 마땅한 스님 찾느라고 헛수고할 일도 없이 보안 스님(분원장)께 드렸겠지만, 오직 유치원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스님을 찾았기 때문에 탁명 스님이 아니면 안 됐다”며 “미국에서 교수로 활동하셨던 탁명 스님이 오히려 유치원 운영을 위해 많은 것들을 포기했고, 운영과정에서 어려운 일들도 적지 않았기에 항상 송구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총림사 이름으로 운영을 시작한 유치원 · 어린이집은 빠르게 성장했고 지역 내 명실상부한 선호도 1위로 자리매김했다. 스님이 운영하는 유치원 ·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모습은 조 이사장에게도 큰 기쁨이자 보람이었다. 개인 부지를 아이들의 캠핑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고 운영상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자처했다.

때문에 조 이사장은 “재단법인 선학원이 유치원 · 어린이집 명의를 등록하라고 했다는 말을 처음 듣고 귀를 의심했다”고 전했다.

“제가 한평생 불자로 살았지만 총림사와 선학원이 어떤 관계인줄도 몰랐습니다. 총림사 땅을 몰래 팔았다기에,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까 했을 뿐이지요. 그런데 그 선학원이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재단에 등록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절대 안 된다고 했지요. 아니 부처님 계신 땅도 몰래 팔아먹는데 유치원 · 어린이집은 ‘식은죽 먹기’로 팔아 없애지 않겠습니까?”

선학원은 조 이사장에게도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탁명 스님이 선학원에 유치원 가등기를 약속했으니 조속히 이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탁명 스님 명의의 이행각서가 첨부됐지만 날인은 없었다. 탁명 스님 역시 “전혀 알지 못하는 이행각서”라고 했다.

조 이사장은 결심을 굳혔다. “반드시 유치원 · 어린이집을 지켜야겠다”는 판단으로 여기저기 자문을 구해 유치원 · 어린이집 명의를 다시 회수했다.

조 이사장은 “사찰 땅을 주지스님 몰래 매각하는 데다가, 성범죄자가 이사장을 하는 재단을 어떻게 신뢰하고 어린이들을 맡길 수 있겠나”라며 “탁명 스님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선학원에 주느니 차라리 내가 가져가서 부처님 포교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상식적으로도 재단법인이 개인의 재산 등록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 자체가 황당하지요. 멀쩡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인데, 그걸 지키기 위해 명의를 회수해야만 하는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탁명 스님이 지금까지 해오신대로 안정적으로 유치원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면 저라도 나서서 지켜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 이사장은 “선학원은 유치원 · 어린이집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동안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며 “단지 탁명 스님이 총림선원 창건주라는 이유만으로 재산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 사회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비상식적인 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환수된 고운사 ‘사십이수관음도’

도난 성보 ‘42수관음도’ 본 자리 고운사로 환수

고운사 부처님오신날 맞아 공개
1989년 도난…사립博서 은닉해

도난됐던 성보문화재 고운사 ‘사십이수관음도’가 환지본처됐다. 고운사는 이를 기념해 부처님오신날에 환수 성보 ‘사십이수관음도’를 일반에 공개했다.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주지 등운)는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환지본처한 성보 ‘사십이수관음도’를 5월 8일 봉축법요식에서 사부대중에게 공개한다.

‘사십이수관음도’는 1989년 1월 13일 고운사 극락전에서 도난 후 2016년 10월 서울 종로의 한 사립박물관 수장고에서 발견돼 2017년 9월 20일 최종 회수됐다. 그동안 불교중앙박물관이 보존해 왔으며 올해 3월 6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이 개최한 〈조선의 승려 장인〉 특별전에 전시됐으며, 고운사로는 3월 20일에 돌아왔다. 도난된 지 33년 만에 제자리를 찾게 된 것이다.

불화는 여래상 2구를 품고 있는 42개 대수인(大手印)을 한 천수관음보살이 연화대좌에 앉아 있는 모습을 표현했다. 통상 42개의 손으로 표현되며 손마다 눈이 함께 나타나는데 이는 수많은 중생을 살피고 구제하기 위함이다.

불화 속의 보살은 갸름한 얼굴에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으며 가느다란 팔과 손가락이 섬세하다. 가슴 앞의 8개의 손은 선정인, 설법인, 합장인 등을 하고 있으며, 왼팔은 길게 늘여 정병을 잡고 있다. 나머지 손은 17개씩 좌우대칭의 원형으로 배열하여 각각 지물을 들고 있다. 천수관음의 형상과 지물은 〈천수경〉 등의 의례에 맞춰 있으나 여래상 2구의 위치, 선정인 등의 수인, 정병의 크기 등에서 조선 후기의 일반적인 ‘천수관음도’와는 다른 요소가 드러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4세기 고려시대 불상 ‘국보’ 승격된다

문화재청, 장곡사 금동약사좌상 국보 지정예고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이 국보로 승격 ·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고려시대 조성된 보물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을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지정 예고한다”고 5월 3일 밝혔다.

또한, 조선왕조 법전 〈경국대전〉과 정조의 한글편지, 천문도로 만들어진 ‘신구법천문도 병풍(新舊法天文圖 屛風)’ 등 10건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예고했다.

1963년 보물로 지정된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은 고려 후기의 유일한 금동약사불상이자 단아하고 정제된 당시 조각 경향을 잘 반영한 작품이다. 발원문에는 1346년(고려 충목왕 2)이라는 정확한 제작시기가 있어 고려 후기 불상 연구의 기준 연대를 제시해주고 있다.

고려 후기 불상조각 중 약합(藥盒)을 들고 있는 약사여래의 도상이 정확하게 확인되는 중요한 문화재다. 또한 온화하고 자비로운 표정, 비례감이 알맞은 신체, 섬세한 의복의 장식 표현 등 14세기 불상조각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여주고 있어 이 시기 불상 중에서도 뛰어난 예술적 조형성을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국보로 승격 · 지정예고된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가로 10m가 넘는 긴 발원문에는 약 1117명에 달하는 시주자와 발원자의 이름이 적혀 있으며, 이는 고려 시대 단일 복장발원문으로서는 가장 많은 인명을 담고 있다. 특히, 발원문을 지은 승려 백운(白雲)은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이자 ‘직지’로 잘 알려진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1377년)을 편찬한 백운 경한(白雲景閑, 1298~1374)과 동일인물로 추정돼 그의 행적을 밝힐 수 있는 또 다른 자료로서 매우 의미가 깊다.

문화재청은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은 미술사 뿐 아니라 불교사, 사회사적 측면에서도 고려 14세기 중반의 역사상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국보로 지정하기에 예술 · 역사 · 학술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등 11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학교법인 광동학원 차기 이사장 초격 스님

이사회서 만장일치로 선출돼
2026년 6월 30일까지 4년간



조계종 제25교구 종립 학교법인인 광동학원 차기 이사장에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학교법인 광동학원은 4월 29일 남양주 광동고 법인 이사장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12대 이사장에 초격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차기 이사장의 임기는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4년이다.

학교법인 광동학원은 운허 스님의 원력으로 1946년 설립됐다. 당시 운허 스님은 일찍이 인재불사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후학양성과 중생제도에 뜻을 뒀고, 해방 직후 봉선사 교구본말사 사찰 소유 전답 약 59만 평과 임야 약 450만 평을 출자해 ‘광동초급중학교’를 설립했다. 바로 광동학원의 모체다.

광동학원은 1948년 제1회 졸업생 21명을 배출한 것을 시작으로, 70여 년 전통을 이어오며 현재까지 4만 7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특히 광동학원은 동문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국가와 지역의 우수한 인재로 자리매김하는 등 명문사학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산하에 남양주 ‘광동중학교’ ‘광동고등학교’ ‘의정부광동고등학교’ 등을 운영 중이다.

차기 이사장 초격 스님은 “광동학원 건학 100년을 바라보며 세계 속의 명문사학으로 우뚝 설 원대한 꿈을 실현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 길에 봉선사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송지희 기자

불기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우리도 부처님 같이

정토마을 간월사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내
봉 정토마을 간월사 적멸보궁 행



울산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40 정토마을 간월사 대표번호 052)255-8588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재)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은
호스피스병동도 함께 운영하는 곳입니다.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의료진과 관계자들은 부처님의 자비정신에 따라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헌신하겠습니다.



울산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석남사 부근) 입원상담 대표번호 052)255-8400 호스피스병동 24시간 상담 052)255-8457

통도사, 숲 속 음악회로 힐링 선사

'숲속 작은 음악회 쓰담쓰담' 5월 1일, 개최해 눈길

음악회 통한 시민 위로나서
문화 · 자연 치유의 장 선물
한영애 등 유명가수 초청해
시민 위한 문화공간 회향의미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영축총림 통도사가 5월 1일 경내 무풍한송로 송수정 앞 특설무대에서 '숲속 작은 음악회 쓰담쓰담'을 개최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가 5월 1일 경내 무풍한송로 송수정 앞 특설무대에서 '숲속 작은 음악회 쓰담쓰담'을 개최했다.

음악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맞아 통도사를 방문하는 모든 시민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며, 코로나 극복 및 일상 회복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도사는 음악회를 기획 의도에 따라 힐링을 선사하기 위해 무풍한송로(舞風寒松路) 송수정 카페 앞에서 열었다. 무풍한송로는 푸른 소나무길과 시원한 계곡이 있어 장소 자체만으로도 힐링을 선사한다. 또 한옥 카페 송수정(送愁亭)은 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이 '무풍한송로를 따라 흐르는 계곡에 근심을 흘려보낸다'는 의미로 이름붙인 곳이다. 음악회에서 대중들은 서로가 오랫동안 잘 버텨주었다는 무언의 격려와 웃음을 건넸다. 가족들과 통도사를 방문한 사람들은 오고 가는 발걸음을 멈추며 힐링을 만끽했고 노래하는 가수들도 "이 길은 극락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통도사는 이번 음악회를 시민들을 위한 선물로 마련하기 위해 가수 한영애씨와 '양지밴드' 그리고 국악 그룹 '비단' 등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가수들을 초청했다.

'무녀의 제사와 같다'는 무대 평가를 받는 가수 한영애 씨는 강물처럼 고요한 음색으로 흡인력 있는 무대를 보여줬다. 카리스마 있는 음색으로 대표곡 '누구없소'와 '여울목', '코뿔소' 등을 부르며 대중과 함께해 박수를 받았다. 또 양지밴드는 영화 화양연화의 주제곡으로 널리 알려진 '키사스 키사스 키사스(Qeizas Qeizas Qeizas)'와 '노란 셔츠의 사나이' 등을 재해석해 불렀다. 퓨전 국악그룹 '비단'은 전통 소리를 담은 악기 해금, 대금, 가야금, 타악 등 국악기로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곡을 선사했다.

공연을 위해 마련된 객석은 만석이었고 많은 시민들은 서서 관람하는 등 높은 호응을 보여주었다. 가족들과 함께 통도사를 방문한 시민들은 진정한 휴식을 얻은 느낌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통도사는 지난해 개산대재를 맞아 10월 9일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을 초청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숲속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장기화와 안전을 위해 음악회가 취소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통도사는 앞으로 이번 '숲속 작은 음악회-쓰담쓰담'을 시작으로 크고 작은 음악 공연을 기획중이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코로나로 인해 몸과 마음이 움츠려 들었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희망의 시작이 보이는 이런 시기에 음악회를 열 수 있어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며 "통도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불보사찰이며 산중에 있지만 여러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자 한다. 오늘 공연은 문화공간 회향의 의미를 담은 한마당"이라고 설명했다.

5000여 불자 창원서 봉축 환희 장엄


창원시불교사암연합회는 5월 4일 마산 해양누리공원 중앙무대에서 창원 연등축제 및 시민봉축음악회를 봉행했다.

창원시 연등축제 5월 4일 봉행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창원특례시 연등축제와 시민봉축음악회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창원시불교사암연합회(회장 정인, 불지사 주지)는 5월 4일 마산 해양누리공원 중앙무대에서 창원 연등축제 및 시민봉축음악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창원불교사암염합회장 정인 스님, 성주사 조실 흥교 스님, 봉축부위원장 정법사 광우 스님, 성주사 법안 스님, 정인사 원행 스님, 불곡사 도홍 스님, 석봉암 월봉 스님, 백운사 석봉 스님, 구룡사 무성 스님, 천웅사 성우 스님, 반야사 혜명 스님, 미타사 선혜 스님 외 지역스님과 각 사찰 회장단, 허성무 창원시장, 하충식 한마음병원 이사장, 조보현 경남 예총회장, 알리, 포레스텔라 등 50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봉축법요식과 2부 음악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법요식은 육법공양(정법사 영축다도회), 삼귀의, 반야심경, 관불의식, 기원문(봉축부위원장 광우 스님), 청법가(연합합창단), 봉축법어(흥교 스님), 봉축사(봉축위원장 정인 스님), 경축사(허성무 창원시장, 하충식 한마음병원 이사장), 찬탄경문(성주사 법안 스님), 발원문(조보현 경남 예총회장), 축원(백운사 석봉 스님), 사홍서원 등으로 진행됐다. 2부 시민봉축음악회는 연합합창단 음성공양을 시작으로 신유식(색소폰), 오유진, 알리, 박서진, 포레스텔라 등이 나섰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3년 만에 펼쳐진 전북지역 환희의 연등물결

전북 봉축위, 연등문화축제 봉행


전북봉축위원회는 4월 30일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요식과 연등축제를 봉행했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해 2년간 열리지 못했던 연등축제가 3년만에 다시 열렸다. 전북봉축위원회(공동위원장 일원, 진성)는 4월 30일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요식과 연등축제를 봉행했다.

연등축제가 열린 전주시청 노송광장 주변에 마련된 체험부스에서는 관욕체험, 연꽃 만들기, 단주 만들기 등 각종 체험 행사가 진행됐으며 참석 대중들에게 비빔밥이 제공됐다.

법요식에 앞서 열린 마이산 탑사 '탑밴드'의 난타 공연은 행사장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고 전북무형문화재 18호 전북영산작법보존회의 영산작법 시연 공연은 불교문화예술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이날 연등문화축제는 금산사 회주 도영 스님을 비롯하여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과 천태종, 보문종, 용화종등 전북지역의 각 종단을 대표한 스님들과 조봉업 전북도행정부지사, 김승수 전주시장등 각급 기관장들과 남궁선 금산사신도회장등 신행단체 관계자를 비롯한 불자들이 동참했다.

공동봉축위원장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어려울 때일수록 빈자일등의 정성스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을 부처님 대하듯 아끼고 힘껏 사랑하자"고 당부했다.

공동봉축위원장 진성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 민족은 고난을 이겨내는 데 항상 부처님의 말씀과 조사님들의 지혜가 함께해왔다"며 "연등축제는 불교적인 행사가 아닌 모두의 안식과 행복을 나눠주는 문화축제로서 온 국민이 함께하는 전통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김희중 주교, 은해사에 봉축메시지 전달 영천 은해사(주지 덕조)에 4월 29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 김희중 대주교가 방문해 봉축메시지를 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해동용궁사, 부처님오신날 '인재불사' 회향

동국대 지역미래장학 참여
장학금 총 2360만 원 전달



해동용궁사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처님이 이 땅에 나투신 의미를 인재불사로 전달했다.

해동용궁사(주지 연규)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처님이 이 땅에 나투신 의미를 인재불사를 통해 회향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는 5월 4일 동국대에서 '제12회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여식에는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과 해동용궁사 주지 연규 스님, 권보성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으며, 해동용궁사는 부산 출신 재학생 12명에게 각 100만 원, 총 1200만 원을 전달했다.

주지 연규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어 뜻깊다"며 "해동용궁사를 찾아주는 불자들의 염원을 담아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미래 불자를 위한 육성장학에 함께 뜻을 모아 장학금을 전달한 해동용궁사의 모든 불자들에게 감사하다"며 "등록금 걱정 없이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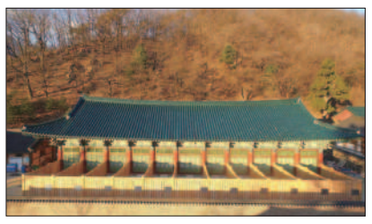
이와함께 해동용궁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역 학생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도 개최했다.

해동용궁사는 5월 8일 경내에서 봉축법요식을 봉행하고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해동용궁사는 부산 및 기장 지역의 중 · 고 · 대학생 15명을 선발해 장학금 총 1160만 원을 수여했으며 장학금은 권보성 신도회장, 최성만 불자 등 해동용궁사 불자들이 십시일반 후원했다.

한편, 해동용궁사는 5월 4일 광주에 소재한 정광고등학교에 쌀 1000kg을 전달했다. 이번 나눔은 기장농민돕기 및 광주 지역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진행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신흥사 향성선원 '무문관'으로 재개원

5일 하안거 결제법회…회주 우송 스님 등 폐문정진



'조계선풍 시원도량(曺溪禪風 始原道場)' 설악산 신흥사가 향성선원을 무문관으로 재개원하고 선맥을 이어간다.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는 "불기 2566년 하안거 결제(음력 4월 15일)를 맞아 향성선원을 무문관(無門關)으로 전환해 개원한다"고 5월 6일 밝혔다. 무문관 수행은 독방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최소한의 공양만 받으면서 용맹정진하는 불교의 혹독한 수행법이다.

신흥사 회주 법검 우송 스님은 조실 무산 스님의 원력을 이어 새로운 설악산문의 선풍 진작을 위해 향성선원〈사진〉을 무문관으로 전환해 새롭게 문을 열게 됐다. 우송 스님은 지난 3년간에 걸친 향성선원 보수불사를 진두지휘한 데 이어 이번 하안거 결제 3개월 동안 수좌들과 함께 무문관에서 폐문정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향성선원은 15명 내외의 수좌스님들이 정진해왔으며 이제는 11명의 수좌가 향성선원에 방부를 들이고 3개월 동안 무문관 수행을 이어간다.

신흥사 향성선원 무문관 재개원을 겸한 하안거 결제법회는 오는 5월 15일 오전 10시 신흥사 설법전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흥사 회주 법검 우송 스님은 "향성선원 무문관에서 수좌스님들이 열심히 수행정진해 제2, 3의 도의 국사와 무산 스님이 나올 수 있도록 본말사 대중 모두가 열심히 외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울산 지장정사, 법요집 불사 성료

5월 1일 봉정, 8개월간 사부대중 원력모아 편찬



울산 지장정사(주지 현우)는 5월 1일 2층 대법당에서 〈지장정사 법요집(불공의례, 영가시식)〉 불사회향 봉정식을 거행했다.

봉정식에는 지장정사 현우 스님,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 황용선 거사대표 및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현우 스님은 "법요집 불공의례와 영가시식 두 권을 4월 초하루 공양발원하여 회향함에 감사드린다"며 "업장소멸과 정진발원을 소망하며 법요집을 불사했다. 8개월간 수정을 거쳐 대한불교조계종 기준에 맞춰 편찬된 지장정사 법요집의 공덕으로 신도들이 행복한 신행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요집을 공양올린 황용선 거사대표는 "법요집 불사는 사부대중 모두가 복을 짓는 마음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발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 정광사, 권상록 신임 신도회장 취임

5월 1일 취임식 봉행…사부대중 500여 명 동참



대한불교천태종 울산 정광사(주지 류화산)는 5월 1일 경내 3층 대법당에서 권상록 신도회장 취임식을 봉행했다.

취임식 및 정기법회에는 정광사 주지 류화산 스님, 구인사 원로원장 주정산 스님,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 권상록 정광사 신도회장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주지 화산 스님은 "정광사 신도는 한 가족이다"며 "5월을 맞아 신도회장 취임식을 갖게 돼 뜻깊다. 기쁜 마음으로 신도회와 불자들이 합심해 함께 정진하자"고 발원했다. 권상록 신도회장은 취임사에서 "부처님의 가피로 정광사 불자님들이 평화롭고 안락하게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주지 스님을 잘 보필해서 울산 정광사 신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찰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함안불교사암연합회 봉축법요식 봉행

4월 30일 함안문화원서…각계 마음 모아



함안불교사암연합회(회장 원명, 달전사 주지)는 4월 30일 함안문화원 2층 대강당에서 불기2566년 봉축연합대법회를 봉행했다.

법요식 행사는 함안수륙보존회의 괘불 이운, 삼귀의, 바웃다합창단 육법공양, 원명 스님 봉행사, 이병철 함안군수대행 축사, 찬불가, 헌공의식, 발원문 및 인사말(조용찬 신도회장), 사홍서원, 공지사항, 회향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연합회장 원명 스님, 칠보사 정광 스님, 청룡사 수암 스님, 발원통사 영공 스님, 불연사 월암 스님, 이병철 함안군수대행, 조용찬 신도회장 등 각 사찰 임원단, 합창단 및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원명 스님은 "새로운 희망의 시대, 화합과 정진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자"고 서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단 한번의 기적 선물, 망설이지 마세요”

생명나눔실천본부 · 현대불교신문 공동기획
‘생명나눔 희망선물’

④ 전통문화마당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 현장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생명나눔실천본부는 5월 1일 서울 우정국로에서 진행된 전통문화축제에 참가,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펼쳤다. 이사장 일면 스님도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경험을 담담히 털어놔 큰 감동을 줬다.

생명나눔, 5월 1일 우정국로서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 진행

단주 · 연꽃 만들기 등 체험공간
시민 300여 명 참여 큰 호응도

일면 스님 직접 시민 만나 권선
경험담 설명으로 큰 감동 전해



옆 부스에서는 단주 · 연등 만들기로 불교문화도 소개했다.

자원봉사자들은 거리에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형형색색 거리를 장엄한 연등으로 축제 분위기가 완연한 서울 조계사 앞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권선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5월 1일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에서 진행된 ‘전통문화마당’에 참가,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생명나눔실천본부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재개된 전통문화마당에서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를 한 명이라도 더 늘리고자 대형 부스 2개를 설치하고 본부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동분서주했다.

한쪽에서는 장기기증 희망등록 상담, 환자치료비 지원 설명이 이어졌고 다른 한 쪽에서는 불교행사 취지에 맞춰 단주와 연꽃 만들기 등 체험공간이 마련됐다. 이날 단주 및 연꽃 만들기 체험에는 시민 300여명이 참여, 큰 호응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텀블러 등 다양한 선물은 연등축제에 참석한 사람들의 발길을 끌며 오후까지 시민들로 부스가 북적거렸다.

동국대 재학생으로 구성된 참사랑봉사단 자원봉사자 15명은 오전부터 홍보팻말을 들고 우정국로를 돌며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환자 지원사업 등 생명나눔실천본부 사업 소개가 담긴 홍보 책자를 전달하는 순회 캠페인을 진행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매번 캠페인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참사랑봉사단은 주요 축제 현장을 찾아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권선하고 봉사단 주관으로 동국대에서 정기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큰 목소리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외치는 청년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에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부스에 관심을 보였다. 이날 희망등록에는 가족 참여가 늘어 눈길을 끌었다. 남편과 함께 장기, 안구, 조직 등을 희망등록 한 이승희 씨는 “주말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 나왔다가 의미 있는 일에도 참여하게 돼 기분이 좋다”고 웃었다. 평소 TV 등을 통해 이식을 기다리가 많은 이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을 접하고 아이들과 장기기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왔다는 이승희 씨는 “희망동록 모습을 아이들에게 직접 보여 줄 수 있어 기쁘다”면서 “우리가족의 정성이 훗날 꺼져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등회를 즐기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가 장기기증이 가져다주는 순기능에 감화돼 망설이지 않고 희망등록한 이들의 동참도 이어졌다. 친구와 함께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나선 황선아 씨는 “사후 화장이나 매장으로 없어질 몸”이라며 “간절한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하면 망설일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단체이기에 더욱 믿음이 간다는 시민도 있었다. 70대 한 어르신은 “각종 행사에서 희망등록 캠페인을 여러 차례 접했지만, 마음이 크게 동하지 않아 망설이다 피하곤 했다”면서 “스님이 이사장으로 계신다는 점이 믿음이 가 바로 신청서를 작성했다”고 웃었다.

이날 오후 캠페인에는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도 함께하며 시민들을 만났다. 일면 스님은 시민들이 가진 장기기증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자 자신의 경험을 담담히 설명해 큰 감동을 줬다. 스님 역시 장기기증 수혜자로서 2000년 간이식 수술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바 있다. 일면 스님은 “당시 저에게 간을 기증해 준 22살의 뇌사자가 없었더라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른다”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복을 많이 지으면 복은 반드시 나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말했다.

이날 캠페인에서 희망등록 신청서 작성자는 100여명.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재개된 캠페인임에도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준 덕분에 큰 성과를 얻었다.

이형렬 생명나눔 사무총장은 “이번 캠페인은 생명나눔에 대한 인식 개선과 생명의 고귀함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많은 시민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해 생명나눔운동이 불교계를 넘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캠페인에서 거리 홍보를 통해 장기기증을 권선해 시민들의 동참을 받아내는 데 일조한 이상용 참사랑 봉사단 회장은 “장기기증이라고 하면 생소하고 막연히 무섭게만 생각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미 있는 행동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 노력했다”면서 “정보 부족과 막연한 두려움으로 망설이는 주변 친구들에게도 제도를 잘 설명해 생명나눔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앞으로 천도재와 대학 캠퍼스 캠페인, 산사음악회 등을 통해 생명나눔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일면 스님 봉축사

지혜와 광명을 온누리에



오늘은 모든 생명이 부처님으로 탄생되는 날입니다. 모든 생명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법신(法身)을 갖추고 있고 만물은 일심의 근원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계신 부처님을 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옷깃을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부처될 사람임을 깨달았을 때 자비의 대중화를 이루고 스스로 불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무명 속에 헤매는 중생들에게 진리의 등불을 밝혀주시고 희망과 기쁨을 주 시기 위해서 입니다. 부처님께서 진실로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완성된 지혜를 혼자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일체중생에게 회향했다는 점입니다. 성도 후 열반에 이르기까지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실천행은 중생들에게 희망과 존경과 큰 감동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간절한 염원과 지극한 정성으로 등을 밝혀 진리의 길을 가고자 서원 해야합니다. 이 등불은 부처님을 향한 찬미의 불꽃이어야 할 것이며, 우리들 자신의 불성을 일깨우고 중생의 어두움을 사르는 지혜의 등불이어야 합니다. 이 성스러운 부처님오신날 우리 모두는 미혹의 어두운 무명을 걷어내고 오늘 밝힌 연등불빛처럼 따뜻하고 밝은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제28회 생명나눔 천도재

일 시 | 2022년 6월 6일 (현충일, 월요일) 오전 10시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불암사 대웅전 (경기도 남양주시)
행 사 | 인간문화재 전수자 초청 살풀이, 바라춤 시연
사전접수 | 2022년 5월 9일 ~ 5월 27일 (토 · 일 · 공휴일 미접수)
현장접수 | 불암사 종무소 앞 회원 접수처
(행사당일 오전 8시 30분~10시)
비 용 | 영가 한 분당 2만 원 (농협 053-17-001346)
문 의 | 생명나눔 (02)734-8050 불암사 (031)527-8345

삶의 마지막 순간 장기기증을 통해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한 장기기증자와 코로나19 희생자,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원 분들의 영가를 축원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합동 천도재를 봉행합니다.

신심 있는 불자님들께서는 천도재를 통해 부모 · 형제, 인연 있는 영가 분들의 극락왕생도 기원할 수 있으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모든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불암사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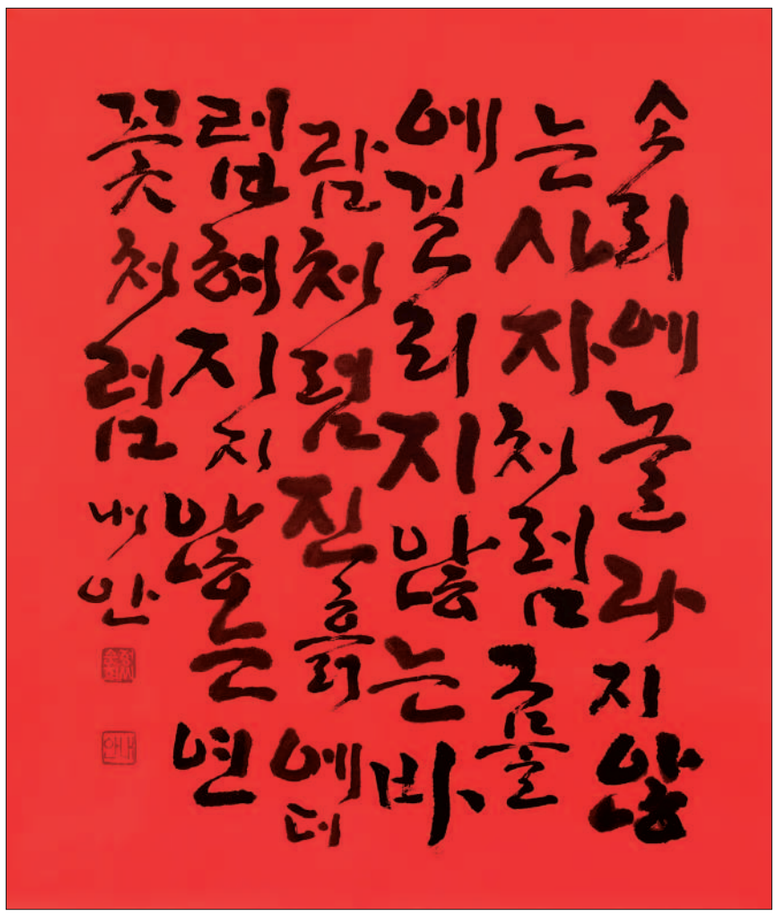
회 주 斗山일면
주 지 선 도
신도회장 전보현자
생명나눔후원회장 정명선화

한장

현대적 조형성 가미한 '서체 추상' 선보여

정순희 개인전 '한글서예전' 한국미술관 5월 11~17일

서예인생 40년 정리, '숫타니파타' 등 80여 점 선보여
궁체정자, 서체추상 등 다양한 한글 서체로 작품구성
힘찬 기세 · 자연미 형질 등 글자 독특한 리듬감 부여


정순희 作, 불교경전(숫타니파타)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2020년 어느 봄날 우연히 단체전에 출품할 작품을 찾다가 한 귀퉁이에 방치되어 있는 커다란 작품의 묶음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작품들을 열어보니 17년 전(2005년)에 써두었던 작품들을 비롯하여 대략 10여 년 전에 스스럼없이 시간 나는 대로 평소에 써 두었던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서예계에서 40여 년 동안 활동해온 한글서예의 흔적들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개인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인 내안 정순희 작가가 서예 인생 40년을 정리하는 개인전을 연다.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열리는 '내안 정순희 한글서예전'이다. 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불교경전(숫타니파타)', '한용운 글' 등 전통 한글서예의 창제정신과 미학적 특성을 잘 드러낸 8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서예는 조형의 범주로만 여겨서는 안 되며 살아 숨 쉬는 생명력과 기운생동하는 필획으로 순수하고 소박한 느낌과 품격이 있는 작품을 창작해야 한다는 옛 선인들의 서법을 늘 간직하며 한글서예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전시 작품들을 보면서 아직도 먼 것을 느끼며 한글서예 공부의 어려움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정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서예 인생 40년을 돌아보고 서예가로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지며 앞으로의 작업에 대해 깊은 모색의 시간을 갖게 됐다고 한다.

이번에 전시는 궁체정자, 궁체흘림, 판본체, 자유체, 서체추상 등 다양한 한글서체의 작품들로 구성됐다. 전통적인 기법과 격식에 맞는 작품들과 전통적 형식 위에 현대적인 미감을 접목한 새롭고 실험적인 형태의 작품들도 있다. 전통적인 작품들은 한글 고전 자료의 임서(교본을 보고 모방함)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 연찬한 후에 창작의 과정을 거쳤다. 새로운 변화를 모색한 작품들은 정형화된 기존 한글서체의 형태를 벗어나 자유분방한 운필과 정 작가만의 색깔이 돋보이는 새로운 문자체계를 보여준다. 또한 서예의 기본 재료인 먹과 여러 가지 채색의 혼용을 시도했으며, 전통적인 한글서예에서 과감히 벗어나 현대적인 조형성을 가미해 추상화에 가까운 '서체추상'의 세계도 보여준다. 정 작가는 전통 서예를 지속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과 조형의 작품에 대한 시도를 계속 이어나간다. 한글서예를 이용한 추상회화라고 할 수 있는 서체추상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한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전통서예와 현대적 미감의 교감을 통하여 한글서예의 폭을 넓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초정 권창륜 작가는 작품집 서문에서 "특히 근자에 와서 시도하는 문자추상은 기존의 법리(法理)와 상(像)을 모두 잊어버리고 무극(無極)의 혼돈 속으로 회귀하여 천진난만한 동심의 세계에서 유영하는 경지에 이르렀음은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철학 사유의 기추를 백분 효용하여 자신만의 예술형상을 담아내었다고 하겠다. 박소(朴素)한 원형질을 찾고자 펄펄 끓는 용광로 속으로 빠져들어가 절대적 미로서 영원무궁한 우주의 원기를 나타내고자 고심한 흔적의 발로라 여겨진다."고 평했다.

정 작자의 작품은 한글에 담긴 음양의 상호 작용을 통한 무한한 생명의 운동성 등 한글서예가 갖추어야 할 힘찬 기세와 자연미의 형질을 아름다운 선조로 드러냄으로써 생동감이 돋보인다. 글자와 글자 사이에 견사(牽絲)를 줌으로써 글자와 글자의 연결을 시도했으며, 그 결과 자간의 연결과 흐름에 독특한 리듬감이 부여되고, 유창하면서 힘이 있어 운치가 넘친다. 대소강약의 변화와 지속의 변화 역시 활달하여 가독성이 좋다. 흘림 글씨와 흘림이 아닌 글씨도 견사로 연결해 전체적으로 흘림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견사는 하나의 글자 안에서 자모음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하나의 글자에서 다음 글자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자간의 경우 다음 글자의 시작점에 도달하여 일정한 기의 흐름을 이어간다. 이를 활용하여 견사가 없는 경우에도 의도적으로 좌우 변화의 배치로 융통해 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준다.

정순희 작가는 서울 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미술교육 전공)을 졸업했다.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과 킨텍스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70여 회의 단체전에 참가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예부문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과 운영위원, 서울교육대학교, 한성대학교, 수원대학교, 강남대학교 강사를 역임했다. 현재는 국제서법 예술연합 한국본부 이사, 서울미술협회 서예분과 이사, 대한민국서예문인화총연합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25대 한국불교학회장에 백도수 교수 선출

"신뢰받으며 배우고 가르치는 학회 만들겠다"



백도수 능인대학원대 불교학과 교수<사진>가 한국불교학회 제2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사)한국불교학회는 4월 29일 오후 5시 서울 동국대 혜화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백 교수를 제25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총회는 40명(위임 125명)이 참석했으며, 백 교수는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와 경선 결과 신임 회장으로 당선됐다. 임기는 오는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2년이다.

백 교수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한국불교학회 회원들의 성원에 의해 당선됐다. 감사드린다"며 "한국불교학회가 조금 더 불교 발전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백 교수는 "신뢰받으며, 배우고 연구하며, 가르치는 학회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백 교수는 "법인이사와 운영위원, 편집위원, 회원들과 소통을 원만히 진행하고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회원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편집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해 자율적 선택권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승가의 참여도 확대할 뜻을 밝혔다. 백 교수는 "승가와 재가의 신뢰를 바탕으로 승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다"며 "승가와 재가학자가 함께 공부하고 연찬하며 현재 불교계의 제반 사항에 대한 학문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사를 원만히 추진하고, 유튜브와 웹툰 등으로 한국불교학회 학술 자료를 대중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다.

백도수 교수는 동국대를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부크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동국대 대학원에서 인도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조계종 포교원 포교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능인대학원대 교수와 월정사 화엄선연구소 책임연구자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근대제주불교사 정립해 '봉려관 스님' 조명

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 5월 21일
한라대 다목적홀서 '학술 세미나'

근대 제주불교역사 정립을 통해 봉려관 스님의 생애와 업적을 되짚는 세미나가 열린다. 봉려관 스님은 1900년대 제주도에 불교의 씨앗을 심고 싹틔운 주역이었지만, 그동안 일부 왜곡 · 축소돼 제대로 조명 받지 못했다.

사단법인 봉려관불교문화원(원장 혜달)은 5월 21일 오후 2시 한라대 한라아트홀 다목적홀에서 '근대제주불교역사 그리고 그 진실을 찾다Ⅱ'를 주제로 2022년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두옥문도회와 하동 무소암, 울주 백련사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제주항일운동, 봉려관 스님의 사회활동, 법정사 항일유적지에 대한 연구고찰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심옥주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장이 '제주항일운동연구의 성찰과 과제_역사인식과 방법론을 중심으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 이성수 동국대 박사(불교신문 부장)가 '격동기 근대제주사회에 여명 밝힌 봉려관 연구_대사회활동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며, 열린논단은 법정사 항일유적지 고찰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종합토론은 허남춘 국립제주대 국문과 교수를 좌장으로, 상민 스님(제주 쌍계암), 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장 혜달 스님(국립대만사범대 박사), 서경순 부경대 대마도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열린논단을 통해 제주향토사 연구가인 한상복 씨의 연구결과물이 발표될 예정이며, 법정사 항일유적지와 관련한 유의미한 증언도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봉려관 스님은 근대 제주불교를 태동케 한 주역으로 인식된다. 봉려관문화연구원에 따르면 조선시대 이후 200여년간 지속된 제주 불교의 암흑기 속에서, 1908년 스님이 산천단에서 봉행한 부처님오신날 공식행사는 근대제주불교의 시작을 알린 울림이었다. 봉려관 스님은 이후 30년간 10여개의 사찰을 창건 · 중창했고 유치원과 중학교 설립을 통한 교육지원과 기근 구제활동은 물론 법정사를 토대로 항일운동에도 앞장섰다. 그럼에도 오랜 세월 역사 속에 감춰진 채 구전으로 내려오다 근래에 와서야 제대로 된 연구조사가 시작됐다.

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장 혜달 스님은 "봉려관 스님의 업적과 생애는 2002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왜곡과 침탈이 진행되면서 제대로 된 조명이 되지 못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불기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대한불교조계종
광명선원
일체제불의 자비와 사랑은 일체중생의 자비와 사랑이다.
-대행선사 법어
사부대중일동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
전화 043)877-5000 팩스 043)877-2900

불기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대한불교조계종
기쁨정사
주지 지인
사부대중일동
부처님땅 한평불사 108만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해포길 305번길 129 전화 031)974-8550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65



▶ 66회 예고

아쇼까왕은 대관식을 앞두고 불면증에 시달린다. 사람들을 살해한 탓이다. 독주에 취한 꾸날라는 왕비 띠쉬아락시따와 하룻밤을 보낸다. 술이 깬 꾸날라는 크게 놀란다. 모욕감을 느낀 띠쉬아락시따가 꾸날라를 탁실라로 보내버린다.

띠쉬아락시따 왕비, 꾸날라에게 반하다

수상 라다굽따는 정궁 회의실에서 경비대장이 아쇼까왕의 칼에 목이 베이는 것을 목격하고는 충격에 빠졌다. 며칠 동안 악몽에 가위눌려서 잠을 자지 못했다. 다음날 새벽. 라다굽따는 강가강 왕실 가트로 나갔다. 제관 시절에는 수시로 나가 기도했지만 수상이 된 이후로는 처음이었다. 강물 위로 안개가 구름자락처럼 떠서 오락가락했다. 새벽기도를 하러 나온 왕실 귀족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라다굽따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다. 오랜 만에 하는 기도였지만 능숙한 자세가 나왔다. 라다굽따는 강가강의 시바신에게 빌었다.

"신이여, 대왕님에게 자비를 내려주소서."

라다굽따는 먼동이 틀 때까지 기도하는 자세를 풀지 않았다. 이윽고 아침 해가 붉은 놀을 뚫고 고개를 내밀었다. 순간 눈부신 햇살 하나가 라다굽따의 이마를 뚫고 지나가는 듯했다. 라다굽따는 그런 번개를 맞은 듯한 느낌에 뒤로 넘어질 뻔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단전에서부터 강한 기운이 정수리로 뻗쳐올라 몸이 뜨거워졌다. 라다굽따는 다시 한 번 기도했다.

"신이여, 대왕님에게 자비를 내려주소서."

라다굽따는 자신도 모르게 강가로 들어가 두 손으로 강물을 훔쳐 얼굴에 뿌렸다. 그때 강 건너 안개 숲에서 여인이 나타났다. 라다굽따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면서 다시 보았다. 그러자 여인은 안개 숲 너머로 사라져버렸다. 라다굽따는 환영을 본 것인가 하고 의아해했다. 마치 꿈속에서 여인을 만났던 것처럼 허망했다. 라다굽따는 강물에 어른거리는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다. 햇살이 반사되어 눈을 부시게 했다. 라다굽따는 중얼거렸다.

'자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여인이 나타난 것일까?'

강가 모래밭으로 나온 라다굽따는 햇볕에 몸을 말렸다. 몸이 말라가는 동안 번쩍하는 빛처럼 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대왕님이 새 왕비를 만나면 관심이 바뀔까? 더구나 대왕님에게는 왕자가 한 명뿐이 아닌가?'

라다굽따는 자신의 친족 중에서 왕비가 될 만한 미모의 여인들을 헤아려 보았다. 브라흐민 출신의 젊은 여인이면 더 바랄 게 없었다.

'그래, 내가 살던 마을에 아리따운 아가씨가 있지. 청년들이 구애하고 청혼했지만 그때마다 콧방귀를 뀌었던 아가씨 띠쉬아락시따가 있지.'

라다굽따는 시바신에게 기도한 뒤 이상하게 기운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라다굽따는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가 관복으로 바꿔 입고서 정궁으로 향했다. 정궁 집무실에 들어서자 아쇼까왕이 반색을 하며 맞았다.

"수상이시여, 어디에서 오는 길이오?"

"참으로 오랜 만에 강가강에 나가 기도를 했습니다."

"신의 응답이 있었소?"

"새벽기도를 하던 중에 대왕님의 새 왕비님 같은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래요? 그런 일도 있소?"

아쇼까왕이 뜻밖에 흥미를 보였다. 라다굽따는 사실대로 숨기지 않고 말했다.

"여인은 안개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제가 사는 마을의 어떤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여인을 만나고 싶소."

"대왕이시여, 참으로 지혜로우십니다."

"어째서 내가 지혜롭다는 것이오?"

"대왕님께서는 단 한 분의 왕자님만 계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대왕들은 수십 명의 왕자들을 두었습니다. 왕자들은 왕의 튼튼한 울타리이기 때문입니다."

"수상의 말이 맞소. 나는 꾸날라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오. 하지만 꾸날라는 정치를 싫어하는 것 같소. 그러니 나에게는 또 다른 왕자가 필요한 것이오."

그때 꾸날라가 공후를 들고 왔다. 아쇼까왕은 기분이 좋은지 꾸날라에게 공후 연주를 시켰다.

"꾸날라, 수상을 위해 공후를 연주해 주거라."

"예, 대왕님."

꾸날라가 공후를 가슴에 껴안고 연주를 시작했다. 그런데 꾸날라의 공후 연주 소리는 그날

따라 구슬프게 들렸다. 젊은 여인이 흐느끼는 듯한 소리를 냈다가 바람이 숲을 스쳐가는 스산한 소리를 냈다. 공후 연주가 끝나자, 갑자기 아쇼까왕이 꾸날라의 나이를 물었다.

"꾸날라. 네 나이가 몇이더냐?"

"올해 열일곱 살입니다."

"내가 탁실라로 반란을 진압하러 갔던 나이구나. 늘 어리게만 보았는데 적은 나이가 아니구나."

라다굽따는 자신의 의도대로 아쇼까왕이 움직여주자 의기양양해했다. 두 손을 크게 휘두르며 정궁 집무실을 나왔다. 꾸날라가 라다굽따를 뒤따라와 물었다.

"수상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왕자님, 대왕님께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기도 끝에 찾았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새 왕비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대왕님께서 허락하시던가요?"

"새 왕비님이 될 여인을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꾸날라가 잠시 침묵하더니 혼잣말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르마 할머니께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너그러워진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대왕님께서는 자비를 되찾을 것입니다."

꾸날라가 자신도 동조한다는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러다가 잠시 후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자신을 키워준 아상디밋따는 어떻게 될까 하는 회의가 솟구쳐 새 왕비를 맞아들인다는 것에 잠시 심사가 복잡해졌다. 그러나 꾸날라는 라다굽따를 믿었다. 다르마 대비와 아상디밋따, 그리고 꾸날라 자신이 원하는 것은 아쇼까왕이 예전처럼 차가운 판단과 따뜻한 마음을 되찾는 것이었다.



며칠 후.

라다굽따는 갓 스무 살이 된 띠쉬아락시따를 데리고 정궁 다실로 갔다. 아쇼까왕이 먼저 기다리고 있다가 띠쉬아락시따를 맞았다. 아쇼까왕은 띠쉬아락시따가 마음에 드는지 호의를 보였다.

"나는 그대를 소개하겠다는 수상의 제의를 허락했소."

"대왕이시여, 저 띠쉬아락시따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꿈이 아니오. 내 앞에 있는 띠쉬아락시따는 젊고 아름답소."

그러자 띠쉬아락시따가 가는 허리를 비틀면서 황홀해했다. 라다굽따는 아쇼까왕의 표정을 보고는 안도했다. 그런데 젊은 띠쉬아락시따는 겁이 없었다. 아쇼까왕이 아름답다고 칭찬하자 라다굽따에게 감사하다는 듯 큰 눈을 찡긋했다. 아쇼까왕은 친위대장을 불러 즉시 지시했다.

"대장, 아상디밋따의 별궁에 살도록 조치하시오."

"아상디밋다 왕비님께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다르마 대비님 별궁으로 가면 되지 않겠소? 아마도 다르마 대비님이 좋아하실 것이오. 아상디밋따를 늘 딸처럼 여기셨으니까."

"수상이시여, 내 마음을 알아주어 고맙소. 나를 기쁘게 하는 신하는 수상뿐이오."

그러나 아쇼까왕의 태도는 이틀 만에 돌변했다. 젊은 띠쉬아락시따가 잔혹한 아쇼까왕의 행동을 보고 혼절할 정도로 바뀌었다. 아쇼까왕이 우두머리 궁녀를 길잡이 삼아 산책을 나갔다가 벌어진 큰 사건이었다. 우두머리 궁녀는 평소에 아쇼까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애를 썼지만 무시를 당하기만 했다. 궁중정원 언덕에 올라 붉은 꽃을 본 아쇼까왕이 우두머리 궁녀에게 물었다.

"붉은 꽃이 핀 저 나무 이름이 무엇인가?"

"아쇼까나무입니다."

"내 이름과 같은 나무가 있다니 기쁘구나. 산책할 때마다 나는 이 나무를 보러 올 것이다."

우두머리 궁녀는 오전산책이 끝난 뒤 궁녀들을 데리고 가서 붉은 꽃과 잎들을 모두 따 없애버렸다. 그런데 아쇼까왕은 오후산책 때 왕비가 된 띠쉬아락시따에게도 아쇼까나무의 붉은 꽃을 보여주고 싶다며 우두머리 궁녀에게 길잡이를 시켰다. 우두머리 궁녀는 사색이 되어 그곳으로 걸어갔다. 아니나 다를까, 아쇼까왕이 불 같이 화를 냈다. 붉은 꽃과 잎들이 모두 없어져 버린 채 나뭇가지만 앙상했기 때문이었다.

"오전까지만 해도 꽃과 잎들이 아름다웠는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죽을죄를 졌으니 죽여주십시오."

아쇼까왕은 용서하지 않았다. 친위대장을 불러 궁녀들을 여러 개의 대나무 상자 속에 넣은 뒤 즉시 불에 태워죽이라고 명했다. 잠시 후 궁녀들이 대나무 상자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죽어갔다. 이를 본 띠쉬아락시따는 그 자리에서 비틀거리다가 도망치듯 그곳을 벗어났다. 그런 뒤 그녀는 시녀의 도움을 받아 왕비별궁으로 겨우 돌아올 수 있었다.

그날 밤.

아쇼까왕은 띠쉬아락시따를 위로하기 위해 꾸날라를 데리고 별궁으로 찾아갔다. 띠쉬아락시따는 아쇼까왕을 보자마자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 궁녀들이 불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현장에서 허락 없이 이탈했기 때문에 질책하러 온 줄 알고는 그랬다. 그러나 아쇼까왕은 겁에 질린 띠쉬아락시따를 달래려고 왔을 뿐이었다. 띠쉬아락시따는 꾸날라가 뒤따라온 것을 알고는 조금은 안심했다. 꾸날라가 있으니 아쇼까왕이 자신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 같아서였다.

"놀라지 마시오. 꾸날라의 연주를 들으면 마음이 안정이 될 것이오."

"대왕님 곁에 끝까지 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오. 신하들이 새 왕비 띠쉬아락시따를 주시하고 있소."

"조심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나무에게 궁녀들이 질투하다니 한심하오."

마음이 금세 안정된 띠쉬아락시따가 하소연하듯 말했다.

"대왕이시여, 여자들의 마음은 그러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나무를 해칠 수 있다는 말이오?"

"나무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귀한 사랑이란 그런 것이 아니오. 그것은 비천한 시기심 같은 것이오."

"대왕이시여, 저도 그럴지 모릅니다. 대왕님께서 저를 사랑하지 않고 나무를 더 가까이 하신다면 저도 모르게 그럴지 모릅니다."

"허허허. 띠쉬아락시따는 나를 웃게 만드는 재주가 있소. 꾸날라야, 공후를 연주하거라."

"예, 대왕님."

꾸날라가 바로 공후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공후를 연주하는 동안 꾸날라는 가슴에 안은 공후만 쳐다보면서 연주했다. 꾸날라의 손가락이 춤을 추듯 줄을 튕겼다. 띠쉬아락시따는 꾸날라의 공후 연주보다는 꾸날라의 눈에 매력을 느꼈다. 아쇼까왕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어버렸을 정도였다. 아쇼까의 눈은 칼날처럼 무서운 데 비해 꾸날라의 눈은 호수처럼 잔잔하고 평화로웠다. 띠쉬아락시따는 꾸날라의 눈에 반해버렸다. 아쇼까왕이 잠깐 졸고 있는 사이에 띠쉬아락시따는 꾸날라의 얼굴을 훔쳐보기도 했다. 그러나 꾸날라는 띠쉬아락시따의 그런 마음을 눈치 채지 못했다. 꾸날라는 고개를 숙인 채 공후 연주만 하고 있을 뿐이었다.〈계속〉

개산 1070여년, 이주중건 500년 기념 대법회

"화계사, 천년의 뜰을 거닐다"

수행중심 교육도량, 세계일화 국제포교의 본찰 화계사는 고려 초에 탄문대사가 창건하고 조선 중종 때인 1522년 신월선사가 현재의 자리로 옮겨 중창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화계사에서는 개산 1070여년 이주중건 500주년을 맞아 대덕큰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산사음악회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합니다.
화계사에 오셔서 코로나 팬데믹에 지친 심신을 치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 자	불공 (10시)	법 문	행 사	기 타
5.26 (목)	상단권공	송원설정 조실스님	다례재	
5.27 (금)		신원성광 회주스님	학인스님 발표회 (해인사, 통도사)	
5.28 (토)		수암 주지스님	괘불재	음악회 (19시)
5.29 (일)		대봉도문 무상사 조실스님	강연회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5.30 (월)		벽산원행 총무원장스님	시상 및 장학금	

※ 행사기간중 매일 공양, 전통차 시음, 특별선물 증정
〈행사기간중 경내에서 불화 및 '화계사 추억의 사진전' 도 마련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화계사길 117(수유동) 전화 02)902-2663 팩스 02)990-1885 www.hwagyesa.org

이강옥 교수의 **한국선 이야기** ⑨ 부모의 마음



▶한줄요약
출가할 태몽을 꾸고 태어난 자식의 출가를 기꺼이 받아들인 부모가 있는 반면, 순순히 허락하지 않은 부모다 많았다. 그리고 출가하여 선승이 된 자식은 찾아온 노모를 문전박대하여 천상으로 인도하기도 했다.

출가 허락한 부모, 반대한 부모

태어날 자기 아이가 스님이 될 것을 계시하는 태몽을 꾸고 되새겨온 부모는 자식의 출가 순간을 기꺼이 맞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도의(道義, ?~825), 적인(寂忍, 785~861), 체징(體澄, 804~880), 범일(梵日, 810~889), 징효(澄曉, 826~900), 혜진(惠眞, 869~958), 긍양(兢讓, 878~956), 원각(圓覺, 1107~1174), 원오(圓悟, 1215~1286), 유정(惟政, 1544~1610) 등의 부모가 그랬다. 출가를 계시하는 태몽을 경험하지 않은 부모 중에서도 자식의 출가를 적극 권유한 경우가 있었다. 혜소(慧昭, 972~1054)의 어머니는 보현보살 탱화를 조성하여 곧 낳을 아들이 출가하기를 간절히 발원하며 청정방정한 나날을 보냈다. 태어난 아기의 턱 언저리의 원상(圓相)이 이런 마음가짐의 결실임을 의심치 않았다. 혜소는 부모의 적극적 지지를 받고 출가하여 큰스님이 되었다. 혜덕(慧德, 1038~1095)의 어머니는 '법왕의 제자'가 될 아들을 간구했다. 혜월(慧月, 1861~1937)의 어머니는 어린 혜월을 데리고 이절저절 다니며 출가의 길을 닦아주었다. 한영(漢永, 1870~1948)의 어머니는 절에서 들은 '생사법문'을 아들에게 전하여 아들을 출가의 길로 이끌었다. 고려 문종은 한 나라의 임금이었지만 가장 영특한 넷째 아들 의천(義天, 1055~1101)을 출가시켰다.

그런데 선승의 부모들 대부분이 자식의 출가를 환영했다고 한다면 '인지상정' 조차 모르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자식의 출가를 앞둔 부모는 으레 흔들리고 머뭇거리며 자식의 결심을 되돌리려 했다. 그것은 불교의 출발점에서부터 그러했다. 마야 부인을 먼저 떠나보낸 숫도다나 왕은 싯다르타 태자가 출가할 수도 있다는 아시타 선인의 예언을 매 순간 떠올리며 번민했다. 어느 날 태자가 궁 밖 동산으로 구경을 떠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신하들에게 엄명했다. 동산을 말끔히 청소하고 태자가 지나갈 길목마다 향수와 꽃을 뿌려라. 금은보석으로 만든 방울을 매달아 이곳이 천상의 낙원처럼 보이게 꾸며라. 길에는 노인이나 병자, 죽은 사람은 물론 벙어리나 장님, 귀머거리 같은 불구자가 보이지 않도록 하라. 그러나 태자는 궁 밖으로 나오자마자 늙은이를 만났고 이어서 병들고 죽어가는 중생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했다. '사문유관(四門遊觀)'은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생이 생로병사의 엄혹한 사슬을 벗어날 수 없다는 철칙을 확인하게 했다.

태자가 수행의 길을 떠나겠다고 하니 부왕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줄 테니 제발 궁에서 머물러 있어만 다오"라고 애원했다. "제가 찾는 것은 늙음과 질병과 죽음을 초월하는 길입니다. 이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죽은 후에라도 다시 태어나는 운명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태자의 대답이었다. 부왕은 포기하지 않고 최대치의 욕망을 아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써 아들을 붙잡아 두려했다. 부왕의 이런 태도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애착'을 전형화한 것이다. 애착은 태자가 떠나간 뒤에 더 강해지고 확장됐다. 이모이며 양어머니였던 마하프라자파티, 태자비 야쇼다라, 그리고 후궁들도 애착을 보였다. 태자를 옆에 둘 희망을 완전히 상실한 부왕은 그 자리에서 졸도했다.

싯다르타 태자의 출가 과정에서 숫도다나 왕을 비롯한 가족들이 보인 모습은 출가하는 자식을 떠나보내는 부모가 어떤 마음을 경험하게 될지를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선승의 출가 과정에서도 부모가 흔들리는 마음을 드러내기도 하고 강력한 반대의 행동을 하기도 했다.

무염(無染, 801~898)의 어머니는 아들이 출가하려 한다고 말하자 태몽을 떠올리며 울면서 출가를 허락했다. 순지(順之, 830~895)의 부모는 마지못해 억지로 허락했고, 낭공(朗空, 832~916)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마음 간절하였으나 슬픔을 머금고 승낙했다. 광자(廣慈, 864~945)의 부모는 슬피 울며 거듭거듭 만류하여 뜻을 바꾸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들의 뜻이 굳고 돌이킬 수 없음을 알고 마침내 허락하였다. 경유(慶猷, 871~921)와 자적(慈寂, 882~939)의 부모도 눈물을 머금고, 애정을 억누르며 출가를 허락했다.

선승 부모 대부분 출가 허락해
간곡히 애원하며 반대 하기도
만공, 야반도주 감행해 출가길
황벽, 모친 문전박대 왕생케해



숫도다나왕은 태자가 출가에 뜻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번민한다. 사진은 석가모니 부처님 고행상.

경보(慶甫, 868~948)의 부모는 출가하겠다는 아들 말을 듣고 탄식하고는 "네가 출가하려는 뜻은 좋으나, 너와 헤어짐은 슬프고 또 슬픈 일이라"하자, 경보는 "뜻은 부모의 곁에 있으나, 마음의 약속은 부처님 앞에 있습니다"고 위로했다. 아버지는 자신의 슬픔을 간곡히 표현하여 아들의 마음을 돌리려 했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사람들의 원하는 바를 하늘도 따라주는 것이거늘 내 어찌 아들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로서 거역할 수 있겠는가"하고 드디어 울면서 허락했다. 법인(法印, 900~975)의 어머니도 전일의 태몽을 생각하고서야 출가를 허락했다. 그리고 "내생에는 나를 제도해줄 것을 원할 뿐 다시는 문에 기대어 자식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어머니가 짧은 시간 안에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자식에 대한 애착을 내려둘 것을 다짐한 것이다.

다른 한편 부모가 더 오래 강력하게 반대하기도 했다. 형미(逈微, 864~917)의 부모는 끝까지 출가를 허락하지 않았다. 형미는 부모 몰래 출가했다. 만공(滿空, 1871~1946)은 부모가 출가를 반대하자 열두 살 때 아예 야반도주를 감행했다.

진공(眞空, 869~940)과 혜심(慧諶, 1178~1234)의 경우는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에 그 어머니가 자식에게 더 거세게 집착하고 더 큰 기대를 하고 있었다. 아들은 그런 여건에서 공부를 잘했다. 어머니들은 유학을 더 공부해야 할 때라며 아들의 출가를 반대했다. 그래도 진공은 결국 출가했지만, 혜심은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출가를 미루었다. 혜심은 과거에 합격하고 대학에 들어가 공부하다 어머니가 병이 들자 간병을 하면서 관불삼매(觀佛三昧)에 들기도 했다. 어머니가 여러 불보살님을 두루 알현하는 꿈을 꾸고서 병이 나았지만 이듬해에 세상을 떠났다. 보조국사를 찾아뵙고 어머니를 천도하기 위한 재를 베푼 뒤 출가했다. 혜심은 아들로서 생전은 물론 사후의 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셈이다.

출가하려는 자식을 쉽게 떠나보내지 못하는 부모들은 자식의 출가에서 두 가지 고통을 감지했을 것이다. 첫째, 부모로서 더 이상 자식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 사랑의 박탈이 줄 고통을 감지했다. 둘째, 자식이 세속 행복과 욕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부모로서 바라봐야 한다. 자식의 쓸쓸함에 대한 상상이 줄 고통을 감지했다. 어느 쪽이든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벗기 어려운 족쇄를 씌우고 있는 형국이다. 〈법구경〉에는 "자식에 대한 갈애는 번뇌로 이루어진 족쇄로서 세상 족쇄 중 가장 강한 족쇄"라고 했다. 중생은 이 애착의 족쇄에 묶여 있다. 애착의 족쇄는 중생의 현생을 억압하고 윤회하게 한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애착을 '부성'이나 '모성'으로 신비화하는 것은 그것이 애착이고 집착이라는 진실을 은폐하는 기제일 수 있다. 우리나라 불교사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나 효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했다. 특히 중세 가부장제 사회에서 억압받고 박탈감을 느껴야 했던 어머니가 아들의 보호를 받고 아들의 구원을 받는 불교 서사가 고려와 조선시대에 두루 만들어져 여성 불자들의 심금을 울리고 심리적 보상을 해주었다. 〈안락국태자전〉, 〈금우태자전〉, 〈목련존자전〉 등이다. 선승의 출가를 앞두고 특히 그 어머니가 더 크게 흔들렸던 것도 이런 불교 서사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떠나려는 선승을 울면서 붙잡은 어머니. 이 '족쇄'를 어찌 할 것인가? 이 질문은 부모와 자식 사이 뿐 아니라 존재 일반 간의 애착에 대한 근본적 성찰로 이끈다.

일체종성(一切種性)은 음욕(淫欲)으로 인하여 태어난다고 한다. 넓게 보면 삼계윤회가 애욕을 근본으로 하여 이뤄진다. 그 중 사람은 애성(愛性)을 근본으로 하여 모태로부터 나와서는 색성향미촉법 등 오진(五塵)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애성이 더해진다고 한다. 그것은 마치 불이 바람을 얻어 더욱 세게 타오르는 것과 같다. 이런고로 생사를 초월하고 윤회를 모면코자 하는 이는 마땅히 욕근(欲根)을 뿌리뽑고 애갈(愛渴)을 없애야 한다고 〈원각경〉은 가르친다. 출가하고자 하는 선승이 애갈을 끊고자 하거나 원천적으로 애갈을 갖지 않는다면, 아들의 출가 앞에서 몸부림치는 부모는 애갈에 여전히 집착하는 것이다.

10. 어머니를 죽인 출가자, 어머니를 업은 출가자

출가는 이렇게 세속 가족 관계에 깃든 애착을 끊는 데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지만, 출가자에게 가족의 끈은 질겨서 쉽게 끊어지지 않고 끊어져도 다시 이어지려고 한다. 출가자는 재가 부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출가자에게 '효행'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은 고려시대 일연(一然, 1206~1289)에게도 우리시대 법전(法傳, 1925~)에게도 깊은 사려를 요구하는 과제였다.

이와 관련하여 선가의 한 범례로 회자되는 것이 황벽 희운(黃檗希運, 당나라 선승)의 이야기다. 황벽은 수천 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황벽산에 주석하고 있었다. 재가 노모가 의지할 곳이 없어 출가한 아들을 찾아오게 되었다. 소식을 들은 황벽은 노모가 도착하면 물 한 모금도 주지 말고 쫓아내라고 제자들에게 엄명했다. 아들의 품에 안길 꿈을 꾸며 며나먼 길을 걸어온 노모는 아들의 얼굴을 보기는커녕 물 한 모금도 얻어 마시지 못하고 발길을 되돌려야 했다. 노모가 강을 건너려고 나룻배에 오르는 순간 그만 기운이 다하여 쓰러져 죽었다. 그날 밤 황벽의 꿈에 노모가 현몽하여 말했다.

"내가 너로부터 물 한 모금이라도 얻어먹었던 들 다생(多生)으로 내려오던 모자의 애정을 끊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졌을 것이다. 네게 쫓겨나올 때 깊고 끈질긴 모자의 애정은 한꺼번에 다 끊어졌다. 그 공덕으로 죽어서 천상으로 가니 네 은혜는 이루다 말할 수 없구나."

노모는 그렇게 박대한 아들에게 큰절을 올리고는 먼 길을 행복하게 떠나갔다. 우리 선승들은 황벽의 이런 자세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효도로써 그에 화답했을까.

〈연세대 객원교수〉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바쁜 일상, 속도에 쫓기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삶의 연속이다. 그러다보니 자신이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종속적인 삶 속에서 혼란과 두려움 뿐이다.

어떻게, 무엇에 의지해야 하나?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틱장애, 스트레스, 가정 · 사업 문제
심령치유, 금식기도, 장기요양

땅끝 마을 청정지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견 성 원
문 의 전 화 010-8208-7836

철학 · 명리 · 주역 · 점술 배우실 분
신내림 인연 제자 · 출가수행자 모집

www.holytec.com

오리지널 유골 보석

영옥(靈玉)

· 납골의 변질과 혐오감이 없습니다.
· 깨끗한 모습으로 영구적입니다.

20년을 유골성형 한 길로 고인 고유의 색상을 발현시켰습니다.
▣ 1기 생성 소요시간 60~90분 소요 ▣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 검색
상담 : 010-5235-2677

조성금 교수의 스토리텔링 본생경 ⑨ 스스로를 보시한 시비왕

▶ 한줄요약
부처님 전생 이야기 중 '시비왕 본생담'은 〈현우경〉 등 여러 경전에 기록돼 있다. 자신을 희생해 중생을 제도하는 서원이 담긴 이 본생담은 2세기 간다라 부조로 시작돼 많은 도상으로 제작됐다.



중생제도, 자기희생으로 완성하다

노예제도와 순장제도가 있었던 2300년 전 맹자는 한 사람의 가치는 천하와 같다고 했다. 그러나 평등과 인권을 외치는 지금의 세상은 오히려 사람의 가치를 생명의 존귀함보다는 수입 · 학력 ·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가격을 매기어 판단하고 있다. 만약 사람의 육신을 값으로 친다면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단순히 저울에 무게로 달아서 값을 매길 수 있을까? 종종 우리는 아끼고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라면 내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들어보기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러한 실천을 행한 이를 보기 어렵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많은 전생 중에 작은 비둘기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온전히 보시하신 '시비왕 본생담' (尸毘王, Śivi, 聖王) 이야기를 보면서, 생명의 소중함과 이타심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 이야기는 〈현우경(賢愚經)〉 제1권, 〈불설보살본행경(佛說菩薩本行經)〉, 〈육도집경(六度集經)〉, 〈대지도론(大智度論)〉, 〈보살본생만론(菩薩本生鬘論)〉 제1권, 〈대장엄론경(大莊嚴論經)〉 제12권 등 많은 경전에 실려있다. '시비왕 본생담' 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존께서는 오랜 옛날 풍성하고 아름다운 나라의 왕으로서 이름은 시비였으며, 항상 자비를 행하여 일체중생을 가엾이 여겼다. 그때 죽음의 징조가 나타난 제석천이 비수갈마와 함께 시비왕이 진정으로 보살행을 실천한다면, 마땅히 죽기 전에 의지할만한 사람이라 생각하여 시비왕을 시험하게 된다. 이들은 비둘기로 변한 비수갈마가 매로 변한 제석천에게 쫓겨 시비왕에게 날아가서 보호를 청했을 때, 왕의 본심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곧 비수갈마는 스스로 비둘기로 변하고 제석천은 매로 변하여 비둘기의 뒤를 쫓아 잡아먹으려 하였다. 그때 비둘기는 매우 두려워하며 왕의 겨드랑 밑으로 날아들어 왕에게 목숨을 의지하였다. 이를 본 매가 왕에게 그것은 내 밥이니 굶주린 내게 빨리 돌려달라고 말하자, 시비왕이 본래 나의 서원은 일체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니 내게 와서 의지한 비둘기를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매가 일체중생을 제도한다면서 굶주려 죽을 내 목숨은 구제하지 않을 거냐는 물음에, 왕이 다른 고기를 주겠다고 하였다.

매가 갓 죽인 더운 고기만 먹는다고 답하자, 왕은 비둘기를 살리기 위해 다른 생명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날카로운 칼로 자신의 다리 살을 베어 매에게 주고 비둘기의 목숨과 바꾸고자 하였다.

그때 매가 그 살로 이 비둘기와 바꾸려고 하면 저울질을 하여 편편해지도록 해야 공평하다고 말하였다. 왕은 곧 저울추를 가운데 달고 양쪽에 판을 두어 비둘기를 한쪽에 얹고, 자신의 다리에서 벤 살을 다른 한쪽에 얹었다. 그러나 다리 살을 다 베어도 비둘기보다 가벼워 다시 두 팔과 두 옆구리 살을 다 베었지만, 여전히 비둘기 무게 보다 모자랐다. 왕이 스스로 저울판에 올라가자 천지가 진동하며, 왕이 어려운 법을 실천한 모습에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

그때 제석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보살행을 실천하는지 묻자 왕은 불도를 얻기 위함이며, 고통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서원하였다. 곧 왕의 몸은 곧 회복돼 전보다 더 건강해졌다."

'시비왕 본생담' 은 기원후 2~3세기 간다라 지역에서 부조로 표현되기 시작해 3~4세기 쿠차(庫車, Kucha) 지역의 키질 석굴, 돈황(敦煌)지역 석굴사원의 경우 4세기부터 만당(晩唐) 시기인 9세기까지 꾸준히 석굴의 벽면에 도해됐다. 그리고 8~9세기에 조성된 인도네시아 자바 보로부두르 대탑에서도 이를 묘사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현존 가장 이른 간다라의 〈시비왕 본생부조〉를 살펴보면, 화면의 왼쪽에 의자에 앉은 시비왕과 왕의 종아리 살을 칼을 든 인물이 베어내고 있으며, 왕의 아래 매로부터 몸을 숨긴 비둘기가 묘사돼 있다. 그리고 화면의 상부에 비둘기를 쫓는 매가 보이며, 가운데에는 저울을 든 인물과 저울에 올라간 비둘기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 금강저를 든 인물은 매로 변신했던 제석천이다. 표현된 인물들의 표정에서 긴장감과 생살을 베어내는 고통이 생생하게 전달이 될 뿐만 아니라, 끈으로 저울의 수평을 잡아 무게를 재는 이동식 저울의 모습이 매우 자세하게 묘사돼 있어 눈길을 끈다.

자기 살베어 비둘기 구한 시비왕
〈현우경〉 등 여러 경전에 수록돼
2세기부터 부조 · 도상으로 제작
이차돈 순교 표현서도 확인 가능
고려시대 이전 이야기 전래된 듯

다음으로 돈황 막고굴(莫高窟) 254굴은 북위 시대(北魏, 386~534)에 조성된 석굴로서, 주실의 북벽에 〈시비왕 본생도〉가 자세하게 서술적으로 표현됐다. 화면 중앙에 반가좌한 시비왕의 머리 위에 하얀색 매가 초록색 비둘기를 쫓는 장면이 묘사돼 있다.

이어 시비왕의 오른손 손바닥 위에 비둘기가 앉아 있으며, 왼쪽 다리 앞에 칼로 왕의 다리에서 살을 베어내고 있는 인물과 하얀 매가 보인다. 그리고 시비왕의 왼쪽에는 세 명의 궁인이 눈 앞에 펼쳐진 처참한 광경에 왕의 오른쪽 다리를 잡고 슬픔에 오열하고 있는 모습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칼을 든 인물의 옆에 하얀색 삼각형의 모자와 소그드 상인의 복식을 착용한 인물이 앞서 간다라의 부조에서 보았던 것과 유사한 이동식 저울을 왼손에 들고 있다. 저울을 든 인물의 손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저울의 기울기가 저울에 올라앉아 합장을 취하고 있는 시비왕쪽이 아니라 반대편 저울에 올라간 비둘기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려시대 제작된 보협인탑 탑신 부분을 탁본한 것으로 시비왕 본생담이 부조돼 있다. 현재 동국대 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만당시기에 조성된 시비왕 본생도. 돈황 막고굴 제85굴에 그려져 있다. 중국 복식 등 현지화된 모습이 인상적이다.

만당시기(848~907) 9세기경에 그려진 돈황 막고굴 85굴 〈시비왕 본생도〉는 화면의 오른쪽에 합장을 취한 채 중국식 긴 의자에 앉아 자신의 다리 살을 베어내는 모습을 지켜보는 시비왕과 칼은 든 인물 그리고 왕의 뒤로 두 명의 후궁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화면 왼쪽에 커다란 고정형 저울이 묘사되어 있으며, 저울의 위에 앉아 시비왕의 다리 살을 지켜보는 흰색 매와 좌우 저울의 접시 위에 파란색 비둘기와 시비왕의 다리에서 떼어 낸 붉은색 살덩어리가 놓여있다. 간다라 부조와 막고굴 254굴에서 느껴졌던 고통과 긴장감은 많이 사라졌고, 대신에 중국적인 복식과 사물들이 눈에 띈다.

그런데 간다라, 중앙아시아, 인도네시아,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위의 '시비왕 본생담' 의 내용이 기록된 글과 유물이 현존한다. 〈삼국유사(三國遺事)〉 권3 '흥법(興法)' 의 '원종흥법 염촉멸신조' (原宗興法 厭髑滅身條)에 시비왕의 보살행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염촉(이차돈)이 자신을 희생하여 중생들이 불법의 이익됨을 깨닫게 하려 하였다. 이때 왕(법흥왕)이 말하길 살을 베어 저울에 달더라도 한 마리 새를 살리려고 했고, 스스로 피를 뿌리고 목숨을 끊어서라도 일곱 마리의 짐승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삼국유사〉가 기록되기 이전 혹은 이차돈의 순교 이전에 이미 시비왕의 이야기가 한반도에 전래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는 보협인탑(寶篋印塔)의 사면에는 부처님의 전생이야기인 '시비왕 본생', '살타태자투애사호 본생' (薩埵太子投崖飼虎), '월광왕손사보수 본생' (月光王損捨寶首), '수대나태자 본생' (須大拏太子本生) 네 종류가 부조로 표현되어 있다. 탑의 조각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탁본한 그림을 살펴보면, 화면의 오른쪽에 높은 관을 쓴 시비왕이 양손으로 칼을 잡고 오른쪽 다리 살을 잘라내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왼쪽에는 전립(戰笠)을 쓴 인물과 저울에 올라간 비둘기가 묘사되어 있다.

시비왕의 보시와 일체중생을 구원하겠다는 서원의 가치를 잴 수 있는 저울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시비왕처럼 나를 송두리째 내놓지는 못하더라도 생명을 존중하고, 오늘 하루도 진심으로 살아가겠다고 서원한다면 보살행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다.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외래교수〉

우공침술
개·인·교·습

딱 6일 만에 우공이 개발한 TLS 침법을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TLS 침법은 어깨, 허리, 무릎의 통증과 같은 우리 몸의 모든 통증들 및 수많은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기발한 침법입니다. TLS 침법은 신경학, 면역학적인 과학이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어려운 경락이나 경혈들을 애써 익히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뇌가 통증을 유발시키는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 TLS 침법으로 자극하는 테크닉만 익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6일 동안에 침술을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침술을 배우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침술을 너무 어렵게 배우고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이 지나치게 형식화된 경혈을 죽어라고 익히고, 그곳에 단순히 침을 찌르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침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발한 침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딱 6일만 시간 내시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발한 TLS 침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믿지 못하신다면 기발한 침술을 배우실 절호의 기회를 놓치시는 겁니다. 지방 분들은 3일 동안의 속성 과정으로도 배우실 수도 있습니다. 우공침술의 침술 개인지도는 1:1의 철저한 실습위주로 실시되며, 서울은 물론 지방의 어느 곳에서든지 저에게 오셔서 교습을 받으시거나 제가 방문하여 교습해 드립니다.

NAVER 우공침술 ▼ 검색 하시면
저의 블로그에 접속되며, 그곳에서 침술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공침술연구원 문의 및 수강신청 : 010-4054-7110

상담환영
■ 빙의에 시달리시는 분 !!
■ 신(神)내림 받기전에 신기운에 시달리시는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고 신기운 때문에 힘드신분!
■ 신기운을 떼어내고자 하신분!

[상담대상]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가지 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 연예인, 연극인, 영화배우, 탈렌트, 가수등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고 감정, 감성 중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빙의와 신기운에 잘 접속되고 벗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예 : 만성우울증, 가위눌림, 불면증, 공황장애, 공포증, 불안장애등에는 반드시 빙의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 다 그런건 아니지만 직업상 시신을 자주 접하는 사건 현장 담당 경찰업무 하신분, 119대원, 소방업무 종사자, 장례식장 종사자 등 심약하신 분들은 빙의에 접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예 : 가위눌림, 악몽자주꿈, 불면증, 망자가 꿈에 자주 나타나는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 몸이 무겁고, 만성 피로감등)
◉ 이상행동, 어느 시점 이후 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등
◉ 희귀병(병원에서 낫지 않은), 조현병, 분노조절장애는 100% 빙의로 인한 것입니다!
(감정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 (환자직접 오지않아도 됨) ⇨ 최고 전문가만 가능
◉ 문제해결, 증상해결 중심으로 상담
◉ 전생빙의치유, 마스터과정수료 ◉ 20여년 빙의, 신기운 천도 경력 노하우 갖춤
◉ 증세가 오래 되었거나 심한 경우는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천도정성과 사후 관리를 꾸준히 받으면서 가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원격사후관리 가능)

※ 전화 ·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전국 최고. 빙의치유. 천도. 신기운 제거. 차단. 벗어나기 전문상담원 제주불교금강선원

제주불교금강선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 3층

박원자의 母情佛心 32 유튜버 무여 스님의 어머니



▶ 한줄 요약
사찰여행 유튜버로 잘 알려진 무여 스님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영향으로 불교에 심취했다. 결국 19살에 밤새 3000배를 하고 출가했다. 한때 출가를 꿈꿨던 어머니는 딸이 훌륭한 수행자가 되길 기도했다.

어머니가 못한 출가, 딸이 이루다



그림 · 최주현

어려서부터 불교 심취한 무여 스님
19살에 출가…이젠 23년차 수행자
출가를 마음먹었던 어머니 영향커
신실한母, 지금도 수행, 기도 매진
딸스님 행복한 모습에 모친도 행복

40대 초반의 무여 스님은 불교계에서 알아주는 유튜버다. 3년 전 '무여 스님과 함께 하는 사찰여행' 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120여 개 사찰 기행 영상을 올렸다. 어느덧 구독자 수 3만 명을 넘겼다. 가히 인기 유튜버라고 할 수 있다. 큰 키에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생글생글 웃는 모습이 화사한 관세음보살의 화현같이 느껴진다. 최근에 KBS '인간극장' 에 등장했으니 더 유명세를 타지 않을까 싶다. 유튜브 촬영 제작을 비롯해 대학원 강의, 사찰의 불교대학 강의를 하고 올 가을 포교원 개원을 앞둔 바쁜 일상의 스님에겐 이 모두가 불법의 길이다. 그대로 삶 자체여서 다 소중하고 재미있다. 행복하다.

무여 스님은 19살에 출가했다. 1달 여 정도 주변을 정리하며 집 떠날 채비를 하는 딸에게 어머니가 물었다.

"어떤 생각으로 출가할 마음을 먹었니?"

"불이 뜨거운 줄 알면 불타는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온갖 생명들이 섞여 사는 사바세계가 어쩌면 타는 불속보다 더 뜨거운 세계인지도 몰랐다. 어찌 그것을 어린 소녀가 간파할 수 있었을까. 전생의 일임을 알았을까, 어머니는 붙들지 않았다. 딸이 출가의 길을 잘 갈 것이라 확신했다. 어려서부터 자신이 한 번 결심한 일은 중간에 포기하는 법 없이 끝을 보았다. 집중력이 강하고 공부도 잘했다. 아버지는 대학이라도 졸업하고 가라며 붙들었다.

"대학에 가서 4년 동안 이런 저런 경험을 하면서 나쁜 습관(업)을 가지게 되면 다시 그것을 닦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아요. 출가해서도 배울 기회는 많을 거고요."

밤새 3000배를 올리고 집을 나서는 딸을 보며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출가한 뒤에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1년 동안은 대문을 잠그지 않았다. 그리고 가끔 생각에 잠겨 울곤 했다. 외할머니는 불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머리 깎여 중 만들었다"며 딸을 한참이나 보지 않았다. 친할머니는 "세상 사람이 다 중이 되어도 내 손주가 중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며느리를 원망했다. 급한 마음에 어디 가서 물으니, '이 사람은 큰 스님 될 사람이니 뒷바라지나 잘하라' 는 소리를 듣고는 복채로 거금을 주고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했다. 기왕에 출가했으니 그곳에서 멋지게 살기를 기도했다. 산다는 게 어디서나 힘든 일이지만 '상구보리 하화중생' 을 서원하고 들어간 승가에서의 삶은 사바세계의 고통과는 결이 다르리라 생각했다. 부디 돌아오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승가가 발전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후원하겠다고.

어머니 자신도 출가를 꿈꾼 적이 있었다. 아기 때부터 울고 보채다가도 불심이 좋은 친정어머니를 따라 절에만 가면 좋아해서 스님들의 사랑을 독차지 했다. 착하게 살라는 것이 불교인 줄 알고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녔다. 그러다가 20대 때 도서관에서 우연히 빌려 본 〈화엄경과 우주의 생명 진리〉라는 책을 보고 불교가 진리를 깨닫는 종교임을 알게 되었다. 진리를 알고 싶었다. 태안사에 계시던 청화 큰스님을 찾아뵙고 출가의 뜻을 말씀드렸다. 스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띠고 친절하게 말씀해주셨다.

"전생에 출가자였지만 금생에는 재가자로 역할을 바꾸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살님은 출가하지 않아도 재가자로서 할 일이 많을 겁니다."

당시는 출가를 권하지 않았던 큰스님이 서운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큰스님의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나게 되었다. 결혼을 하고 능인선원 불교대학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했다. 1년 동안의 교리과정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었다. 한참 신심이 고조되었을 때 첫아이가 찾아왔다. 내게 오는 생명이 만인에게 존경 받고 빛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고 간절히 기도했다. 관세음보살을 벽에 붙여놓고 관음주력을 하는 사이 아이가 태어났다. 날마다 보았던 사진 속의 관세음보살과 닮은 아이였다. 단정하고 예뻤다. 아이가 얼마나 예쁘던지 간호사들이 모두 놀랐다.

까까머리 동자승 같은 모습으로 왔던 아이는 순하고 착하게 잘 자랐다. 집중력이 뛰어났다. 물론 공부도 잘했다. 한참 멋 부리기 좋아할 사춘기 때에도 옷을 사거나 먹는 것에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중학생이 되자 경전을 읽어주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해줬다. 초롱초롱한 눈을 동그랗게 뜨고 흥미롭게 이야기를 듣는 아이에게 물었다.

"너, 이거 알아듣니?"

"다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에 환희심이 일어나요."

아이는 매일 '지장보살' 을 부르며 종이에 적었다. 그리고 발원했다.

"무상 대도를 성취하고 무량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아이를 데리고 길상사에 다녔다. 엄마가 선원에서 참선을 하고 봉사를 하는 동안 아이는 수련회에도 참석하고 스님들의 법문을 들었다. 어린 나이에도 법정 스님의 책을 비롯해 불교 책을 보고 법문 듣는 것을 지루해 하지 않았다. 절에 가면 제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해 했다. 출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았다. 출가해서 수행을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자유롭다는 길상사 스님들의 말씀이 귀에 쏙 들어왔다고 했다.

〈금강경〉을 읽는 고등학생 딸에게 친구들이 한문책을 읽느냐고 물었다. 딸은 한문으로 되어 있는 어려운 내용인데도 재미있어 했다.

그러는 사이 어머니 자신의 불심도 깊어졌다. 청화 큰스님을 찾아가 실상법문을 들으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안목을 넓혔다. 한마음선원에 가서 대행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마음의 지평이 넓어짐을 느꼈다. 재가자들도 아침저녁으로 30분씩 좌선을 해야 한다는 청화 큰스님의 가르침 덕분에 좌선이 일상화가 되었다. 새벽 예불 때는 울컥거리며 간절하게 신심이 올라오곤 했다. 그럴 때마다 전생에도 이러했겠구나 생각했다. 두 딸들은 잘 커갔다.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큰 딸이 출가를 선언하고 집을 나간 것이다.

딸은 행자생활을 할 때 한두 번 집에 들렀다. 말하지 않아도 힘든 게 눈에 들어왔다. 손등이 터져 피가 맺힌 것이 보였다. "고생스럽냐"고 물으면 괜찮다며 하룻밤 자고는 새벽에 돌아갔다. 마음이 아팠지만 그 이후 출가자 생활에 대해 묻지 않았다. 잘 이겨내며 제 길을 갈 것이라 믿었다. 강원을 졸업할 때 오라고 해서 가보니 교육원장상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상은 스님들이 추천해주어야 받는다고 했다. 자랑스러웠다. 딸 스님은 출가해도 배움의 기회는 많을 거라는 자신의 말대로 대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면서 열심히 살았다.

출가 23년 차인 무여 스님께 물었다. "행복하시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금방 대답했다. "그럼요! 100퍼센트!"

요즘 더 행복하다는 스님께 다시 물었다. "행복이 뭐죠?"

"힘들고 어려운 처지가 되어도 그걸 남 탓으로 돌리지 않고 언젠가 지나갈 일이라 생각하고 또 나에게 잘못이 없나하고 관조하는 것이 불교죠. 제가 불교를 만나 행복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남 탓을 전혀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제 자신으로부터 나왔거든요. 남 탓을 하지 않고 자신을 관조하면서 살면 행복한 일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있어도 행복해요."

"자신의 현재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때 행복하겠군요?"

"그럼요! 저는 100퍼센트 수용하고 삽니다!"

젊은 무여 스님께 세상의 어머니들이 자식을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를 물었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 소중한 인격체로 자식을 대하면 좋겠어요. 정말 자식을 위한다면 자식이 내 뜻대로 따라주기를 바라지 말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나 재능을 잘 살펴봐서 자식이 원하는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한 발자국 떨어져서 지켜봐주는 게 부모님의 역할이죠. 부모님들이 수행을 하면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죠. 그러면 자식을 키우는 자세가 바뀌고 자식이 행복해지겠죠. 행복하지 않은 부모님 밑에서 행복한 자식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님의 어머니 은현순(금강심) 여사는 올해 예순여덟이다. 하루 두 시간 수행자처럼 정진한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목욕재계하고 아침 예불을 올린다. 광명진언과 츰부다라니 108독을 한 다음 좌선을 한다. 저녁에 일을 끝내고 돌아와서는 정확히 8시 30분이면 108배를 한다. 〈화엄경〉 약찬게와 법성게를 읽고 츰부다라니 108독을 한다.

그리고 20년 째 같은 자리에서 옷 수선 가게를 하고 있다. 바느질이 꼼꼼해서 단골도 많다. 일하는 게 너무 재미있다. 내 손으로 버는 돈을 필요할 때 쓸 수 있으니 오래 일하려고 한다. 선하고 건강한 남편은 곁에서 세탁소를 경영하고, 언니가 출가할 때 서운해서 많이 울었던 작은 딸은 자식 낳고 잘 산다. 무엇보다 출가한 딸 스님이 씩씩하게 잘 살고 있으니 세상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다.

무여 스님이 행복한 이유는 어머니가 이렇듯 행복해서가 아닐까?

세상의 어머니들이여, 자식이 행복하길 원하면 자신부터 행복하시라! 행복하지 않다면 지금 여기의 현재 상황을 적극 수용해보시길! 그래도 행복하지 않으면 티 없이 맑고 환한 관세음보살의 모습으로 전국 방방곡곡 사찰을 기행하며 '행복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이미 와있다' 고 소식을 전하는 무여 스님을 만나보시길 바란다.

〈작가〉

백만원력 결집불사
위례신도시
상월선원 신축불사

아홉스님의 석 달 동안의 동안거 상월선원 천막결사 정신을 계승하여 한국불교 중흥과 나라와 국민의 평안, 나아가 온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상월선원 신축불사를 추진합니다. 봉은사의 위례 신도시 상월선원 건립불사는 상월결사의 정신을 담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발원으로 시작된 백만원력 결집불사와 함께 우리 불자 한명 한명의 원력을 모아 한국불교의 내일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상월선원 신축불사 모연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상월선원 전체 불사 모연



전체 불사 : 1인 100만원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5-099939
농 협 301-0299-2142-01
국민은행 401301-04-080435
예 금 주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문의/안내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02)3218-4811 / 4837

홈페이지 http://www.bongeuns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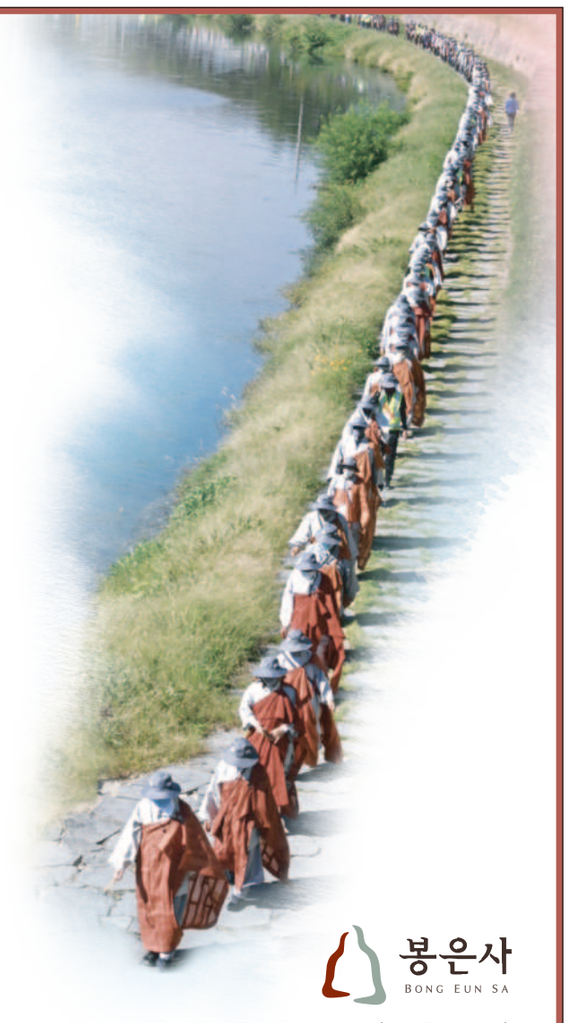
상월선원 대웅전 불사 모연





구 분	수 량	동참금
상량보	1개	2억원
대들보	18개	1억원(개당)
기둥	18개	5천만원(개당)
도리	77개	2천만원(개당)
주춧돌	18개	5백만원(개당)
서까래	236개	1백만원(개당)
기타		십시일반

구 분	내 용	가족모연(금판)		개인모연(은판)		십시일반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불상	삼존불(석가모니불) 및 좌대	5명	3억원	200명	100만원	500명	10만원
	삼존불(약사여래불) 및 좌대	5명	2억원	200명		500명	
	삼존불(아미타불) 및 좌대	5명	2억원	200명		500명	
	관세음보살 및 좌대	5명	1억원	200명		500명	
	지장보살 및 좌대	5명	1억원	200명		500명	
구 분	내 용	가족모연		개인모연		십시일반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탱화	후불탱화 삼세불도	10명	1억원	200명	50만원	200명	10만원
	신중탱화	10명	5천만원	200명		200명	
	감로탱화	10명	5천만원	200명		200명	



봉은사 BONG EUN SA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 (삼성동 73번지)

日, 모두에 열린 베트남사찰 화제

와라쿠지, 베트남이주민 안식처
인권보호 · 인식개선 활동 진행
일본인도 교류…공동기도회 등
모두에게 열린 도량 되길 발원

박영빈 객원기자


와라쿠지에 모여 법회중인 재일 베트남 불자들. 사진출처=마이니치 신문

국제화 시대, 다양한 불교전통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각자의 전통을 따르는 사찰들이 세계 각국에 세워지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이 중 일본에 세워진 베트남 사찰이 재일 베트남인들은 물론, 현지 일본인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해 화제다. 4월 24일,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고베시에 소재한 베트남 사찰에 대해 보도했다.

고베시 나가타구의 주택가에 소재한 베트남 사찰 '와라쿠지(和樂寺)'. 붉은색 연등과 갈색으로 칠해진 베트남식 입구가 사찰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와라쿠지는 현재 일본 전국에 산재한 10곳의 베트남 불교 사원 중 하나로 2012년에 건립됐다. 와라쿠지의 주지 틱덕치 스님은 "건립당시 일본의 베트남 사찰은 도쿄 근교에만 있었다. 그러나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이 대거 거주하고 있는 간사이 지방에도 사찰을 건립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개원하게 됐다"고 전했다.

2011년 일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불교신자들과 뜻을 함께하는 일본인들의 보시로 2층 목조주택 2채를 구입, 약 반년에 걸쳐 사찰로 개축했다. 1층은 공양간을 비롯해 대중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 2층은 법으로 2미터 높이의 석가모니불상을 본존으로 관음지장의 3존불을 모셨다. 또 주변 민가의 소음문제를 생각해 법당의 창문과 출입문은 모두 방음장치가 설치했다. 틱덕치 스님은 "불상을 비롯해 법당의 장엄구와 법구 등을 모두 베트남에서 하나씩 이운해 왔다"며 일본 속에서 베트남 사찰의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틱덕치 스님은 "와라쿠지는 매일 재일 베트남인들이 사찰에 모여 향수를 달래는 장소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설날과 같은 명절에는 간사이 지방을 중심을 2천 명이 넘는 베트남인들이 찾아온다"고 전했다. 최근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실직하거나 살 집이 없어진 베트남인들이 사찰에서 함께 살고 있다. 재일 베트남인들에게 이곳은 제 2의 집과 같은 장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스님은 "나 역시 유학생으로 일본에 들어왔다. 함께 들어와 일본에서 일하던 친구가 과로사로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직접 보고서 동포들을 돕기 위해 출가를 결심했다. 나 역시 여러 고충을 직접 겪었기에 재일 베트남인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한다"고 밝혔다. 실제 와라쿠지는 온오프라인으로 재일 베트남인들의 권익을 보호, 인식개선과 같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와라쿠지는 사찰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베트남인들을 위한 기도법회나 천도재를 집전하고 일본불교계와 교류를 통해 베트남 불교를 일본인들에게 소개하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양국 공동기도회나 교환법회 등의 법석도 열고 있다. 또 매월 무료 불교강좌를 진행해 교학적인 포교활동도 하고 있다. 틱덕치 스님과 함께 포교활동에 나서고 있는 일본 스님들은 "일본과 베트남 양국의 사정에 밝아 두 나라에 모두 적합한 설법으로 틱덕치 스님의 강좌는 항상 반응이 좋다"고 전했다. 틱덕치 스님은 "와라쿠지는 베트남과 일본, 모두에게 열린 도량이다. 대중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기에 언제나 편안하게 발걸음을 옮겨주길 바란다"고 웃어보였다.

교황청, 부처님오신날 축하 메시지

교황청 종교 대화위, 5월 1일
"코로나19 · 전쟁속 역할 해야"

전 세계 불교도들이 2022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축제 분위기를 만끽하는 가운데, 이웃 종교에서도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고 있다.

헤럴드 말레이시아 등 외신들의 5월 3일 보도에 따르면, 로마 교황청 종교간 대화위원회는 5월 1일 '불교와 기독교가 함께 희망의 회복 속에 서다' 라는 제목의 부처님오신날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다.

메시지에는 의장 미겔 앙헬 아유소 기소 추기경과 스리랑카 바둘라 교구의 인두닐 자나카라트네 코디튜와쿠 칸카나말라지 등이 서명했다.

교황청 관계자들은 "우리는 인류가 다양한 위기에 직면한 이 시기에 글을 쓴다"며 "3년 연속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사람들이 건강 위협에 내놓여 있다. 또 생태학적 위기와 빈번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무고한 피와 광범위한 희생을 유발하는 전쟁까지 겪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그들은 '인류가 과학과 사상의 발전을 분명히 이루고 있지만 평화에 있어서는 후퇴하고 있다' 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을 인용하며 "애석하게도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극에 대응해 연대와 연합의 조짐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속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물질적 부를 쫓고 정신적 가치를 포기하면서 인간은 도덕적 쇠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황청 관계자들은 불교와 기독교 등 종교인들이 화해와 인간 존엄성의 회복을 추구하는 한편, 인류를 지속가능토록 종교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들은 "종교인들은 숭고한 원칙을 지탱함으로써 인간들이 많은 고통을 야기하는 정신적 공허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희망의 등불이 돼야 한다"며 "종교의 말씀은 결코 폭력을 답으로 제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교의 연민의식과 지혜는 다양한 사회적 계획을 수립하는 데 많은 영감을 준다"며 "교황의 말처럼 희망은 우리에게 항상 해답을 주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 일하자"며 "희망으로써 현재의 역경을 함께 해쳐가자"고 덧붙였다.

박정현 객원기자

미얀마 군부, 불교계 공격 논란

반군부성향 출가자 사상 이어져
마을 공격 과정 스님 33명 사망
전국서 40여 스님 구금 알려져



군부의 폭력사태에 평화시위를 벌이는 스님들.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글로벌

지난해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에서 군부가 불교계에 대해 공격을 이어가고 있음이 밝혀졌다. 4월 27일 'RFA 미얀마',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 등의 외신은 반군부성향 출가자와 불교지도자들에 대한 체포와 살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2월 군부의 쿠데타 이후, 평화시위가 무력투쟁으로 격화되면서 미얀마 전국에서 내전이 이어지고 있다. 군부의 무차별 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군부가 사가잉(Sagaing) 북부 지역의 한 마을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스님과 3명의 민간인을 총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됐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군부는 최근 며칠 동안 9개 마을에 불태웠으며 그 중 4개는 전소된 것으로 전했다.

전소된 마을의 한 주민은 "우리 마을 인근에서 군부와 저항군의 전투가 있었다. 저항군이 후퇴한 후 군부가 저항군의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마을들에 불을 질렀다"며 참상을 밝혔다. 현지 언론들은 이 지역에서 지난해 동안 40개 이상의 마을에서 약 3만 명이 집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한 저항군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군부는 마을사람들에게 한 마디 경고도 없이 포격을 가하고 방화를 저질렀다. 한 마을의 경우 스님이 민가에 방화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 현장에서 총살했다"고 말했다.

RFA미얀마는 "군부는 테러리스트로 지목한 반군부 무정단체의 공격으로 33명의 스님들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당했다 주장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대신 자체적인 보도자료와 현지 언론들을 분석하여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 중순까지 38명의 비구스님과 1명의 세얄레이(여성출가자)가 군부에 의해 살해됐다"고 보도했다.

출가자들에 대한 살해와 체포에 대한 외신의 질문에 미얀마 군부는 "출가자들을 체포하는 일은 극히 드물며, 승려를 가장해 활동하는 테러리스트에 한해서만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군부가 출가자들을 살해한다는 보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RFA 미얀마는 자체 기록에 따르면 최근에도 5명의 스님들이 군부에 의해 체포, 혹은 살해 됐으며 미얀마 전국에서 40여 명의 스님들이 구금되어 있다고 전했다.

현지 소식통은 "친군부적 행보를 보이는 스님들이 군부의 만행을 정당화하고 있다. 일부 스님들은 군사훈련을 받고 실제 일부 전투에 참여했다"고 증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지 여성은 "살해당한 스님들과 민간인들은 친군부 성향의 스님들의 묵인하에 일어난 일이다. 군부는 불교를 이용해 자신들의 만행을 정당화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만달레이 승가연합의 아신 라자담마 스님은 "진정한 승려는 군사훈련에 참여하거나 군대의 정보원 역할을 해선 안된다"며 이는 율장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역사적으로 출가자의 정치참여는 정의를 위한 비폭력적인 행동이었다"며 민주주의의 회복을 바라는 출가자들은 평화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명상 앱, 집단 · 개인 지혜 공유의 장"

마음챙김 전문가 미트라 마네쉬 인터뷰



명상 애플리케이션(앱)이 보편화 된 현대사회에서 앱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UCLA 교지 데일리브루인(dailybruin)은 4월 28일(현지시간) 마음챙김 전문가이자 명상 앱 '이너맵' (Innermap)의 개발자 미트라 마네쉬(Mitra Manesh · 사진)와 인터뷰를 갖고 명상 앱의 발전 방향과 올바른 사용법 등을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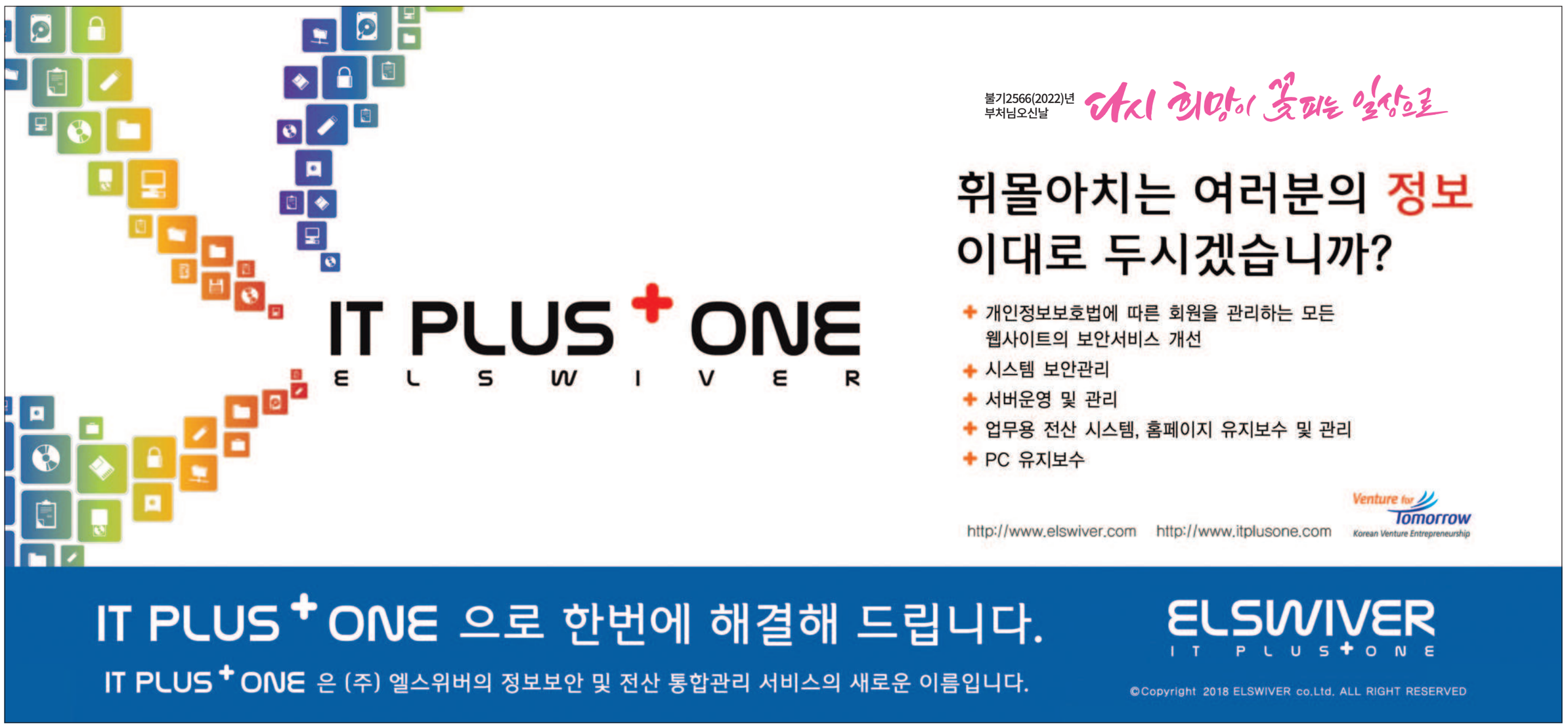
마네쉬는 "마음챙김명상 앱과 같은 플랫폼들은 불교의 지혜와 새로운 기술 산업을 융화시킨 산물"이라며 "누구든지 몸과 마음의 감각을 탐구하기 위해 잠시 명상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더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리 많은 자원과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명상 앱은 사람들에게 체험과 함께 관심을 환기시키는 유용한 입문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마네쉬는 그것들의 효과가 공동체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으로써 더 향상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마네쉬는 "사람들은 앱을 통해 많은 이득을 본다. 혼자서는 절대 명상을 시작하지 않을 사람들도 앱을 통해 명상을 시작하고 있다"며 "나는 그것이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집단과 개인의 지혜를 공유하는 것은 개개인을 연결한다"고 했다.

마네쉬는 특히 이너앱을 사용자의 특별한 순간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마음챙김명상 앱이 인플루언서들이 말하는 특권화된 특징 묘사가 청취자들을 고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마네쉬는 "기술 자체에는 의식이 없다"라며 "우리의 의식만이 기술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 또는 해칠지를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무명주지, 여래 지혜만으로 끊을 수 있어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⑱ 상응과 불상응

"세존이시여, 일어난 번뇌는 찰나의 마음이 찰나에 서로 응하는 것이지만, 세존이시여, 마음에 서로 응하지않는[心不相應] 것은 시작이 없는 것이 무명주지(無明住地)입니다. 세존이시여, 또 여래의 보리 지혜로 끊을 수 있는 항하의 모래보다 많은 법은 모두 무명주지로 유지되는 것이며, 세워진 것입니다. 마치 온갖 종자가 모두 땅을 의지하여 나고 세워지고 자라는 것이므로 만약 땅이 부서지면 저것들도 따라서 부서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이 여래의 보리 지혜로야 끊을 수 있는 항하의 모래알보다 많은 법은 모두 무명주지를 의지하여 나고 세워지고 자라는 것이므로 만일 무명주지가 끊어지면 여래의 지혜로 끊을 수 있는 항하의 모래알보다 많은 법도 모두 따라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체의 번뇌와 상번뇌(上煩惱)가 끊어지면 여래께서 얻으신 항하의 모래알보다 많은 온갖 법을 통달하여 걸림이 없으시고, 온갖 지견(知見)이 온갖 허물을 여의고 온갖 공덕을 얻으며, 법의 왕이신 법주(法主)께서 자재함을 얻어 온갖 법에 자재한 지위에 오릅니다. 그러므로 여래 · 응(應) · 등정각(等正覺)께서 사자후(師子吼)를 하시기를, '나의 나는 일이 이제 끝났고, 범행(梵行)이 이미 이루어졌고, 할 일을 이미 해 마쳤고, 다음 생의 몸(後有)을 받지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세존께서는 사자후로 올바른 이치를 의지하여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주관과 객관이 나누어진 상태에서 처음 원초적인 생각이 미세한 단계에서 점점 거칠어지는 파생적인 생각의 단계로 진행이 된다. 이를 〈기신론〉에서는 세 가지 미세한 단계와 여섯 가지 거친 단계인 3세(三細) 6추(六麤)의 9상차제(九相次第)로 설명하고 있다. 상응이란 생각하는 주체와 생각되어지는 대상인 객체가 분리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번뇌의 경우를 말하고, '불상응' 이란 주객의 나뉨이 없는 본래 깨닫지 못한 무명의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이 불상응을 무명주지라 하였다. 또한 이 무명주지가 마치 대지가 온갖 식물의 종자를 싹트게 하고 자라게 하듯이 깬지스강의 모래알보다 많은 상번뇌가 무명주지에 의해 일어나 점점 커지게 된다 하였다. 이 무명주지는 오직 여래의 지혜만으로 끊을 수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 무명이 깨달음을 등지고 진로(塵勞) 합해진 최초의 원초적인 상태다. 중생의 생사가 무명에서 시작된다고 12인연설에서 밝히고 있다. 불생불멸(不生不滅)하는 진여(眞如)가 생멸로 더불어 화합하는 최초의 상태를 아뢰야식(阿賴耶識)이라 한다. 그래서 아뢰야식을 설명할 때 비일비이(非一非異)이라는 말을 쓴다.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다는 것은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란 말이다. 곧잘 물과 파도의 예를 들어 비유해 설명한다. 호수나 바다의 수면이 바람이 없으면 물결이 일지 않아 고요하다. 이 상태가 불생멸인 진여의 상태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수면에 물결이 일어난다. 파도가 생긴다. 이 물과 파도가 고요하다가 움직이는 것이므로 동정(動靜)으로 보면 달라졌으니 똑같은 상태 하나가 아니다(非一). 그러나 물과 파도가 다르지 않다. 물이 파도고 파도가 물이다(非異). 이 비일비이(非一非異)가 아뢰야식 본식(本識)으로 진여가 움직여 생각이 움직여 번뇌가 되는 원초적인 시초다. 이것을 무명주지라 하는 것이다.

아뢰야식을 진망화합식(眞妄和合識)이라 한다. 진과 망이 섞여 있다는 뜻이다. 진(眞)은 불생불멸(不生不滅)이고 망(妄)은 생멸이다. 망이 없어지고 진(眞)만 남은 것이 각(覺)이다. 그래서 〈기신론〉에서는 깨달음(覺)을 정의하여 '심체이념(心體離念)' 이라 하였다. '마음 자체에 망념(번뇌)이 떠나갔다' 는 뜻이다. 불교의 수행이 망(妄)을 없애 진(眞)에 돌아가는 것이라 하여 망궁진로설(妄窮眞露說)이 나왔으며 일반적인 말로 복귀설(復歸說)이라고도 한다.

최초의 번뇌는 미세하고 미세하여 불상응이다. 이때는 움직이는 기미가 생겼을 뿐 주객이 아직 미분(未分)이다. 주관 쪽이 생기고 객관 쪽이 생기면 상응(相應)이 된다. 불상응(不相應)은 미세하고 미세한 것이지만 상응은 미세하지만 거칠게 동력이 조금씩 거세지는 상태다. 이것이 원초적인 생각이 파생적인 생각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이것이 상응과 불상응의 뜻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意·念 단련해 깨닫는 것이 염불·참선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㊶ 관세음보살 염불수행 올바른 수행법 2

불자 여러분! 염불수행은 싸띠 수행이기 때문에 염(念)을 싸띠라는 의미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염불에서의 '염(念)' 은 싸띠(sati)인 것입니다. 싸띠는 인도 팔리어입니다. 마음의 모든 작용을 '알아차림' 하는 마음의 기능이 바로 '싸띠' 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들이 견문각지하고 판단하는 일반적인 마음[citta, 心]은 대체로 4가지 마음을 구성하는 기본요소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첫 번째 요소는 감각기관을 통해 인지 대상을 인지하고 반영하는 의[意, manas, 認識, mind-mirror]입니다. 이 의(意)의 기능은 6감의 모든 상을 모두 마음속에 맺히게 한다고 해서 '마음거울' 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두 번째 요소는 마음의 모든 작용을 알아차림하는 싸띠[sati, 念]입니다. 이 싸띠는 자각(自覺) · 주의집중 · 알아차림 · 마음챙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주의집중' 이 가장 알맞은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싸띠의 역할 속에는 집중과 관찰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지관(止觀)의 의미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싸띠는 마음을 구성하는 인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음의 본래 기능이기도 합니다. 또한 싸띠는 마음에 나타나는 모든 마음 작용을 알아차림하는 기능이지만 한편으론 마음의 작용이 시작되는 최초의 한 점 의식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세 번째 요소는 마음 거울에 맺힌 상[識, vinnana, 反影, image]입니다. 감각기관이 대상경계를 접촉할 때마다 감각기관이 접촉한 이미지가 반드시 마음에 그 상(相)이 맺히게 되는데 이것을 식(識)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네 번째 요소는 영겁의 윤회 삶 속에서 기억된 훈습의 종자식들이 저장된 기억정보[anussati, 記憶, memory]들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구성하는 의(意)와 싸띠(sati) 그리고 식(識)과 기억(記憶)의 네 가지 기본요소들에 의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하면서 마음은 다차원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 중에서 마음거울[manas.意]인 '의(意)' 와 마음의 모든 작용을 알아차림하는 '싸띠(sati, 念)' 는 마음의 본래 기능입니다. 그래서 진여본성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의(意) · 념(念)을 합해서 '앎' 이라고 하고 또는 '봄' 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맺힌 상[識]과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정보들은 모두가 '허상' 이고 '환' 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환과 같고 그림자와 같은 허상 · 망상을 좇아 집착하며 희로애락을 느끼거나 괴로움을 겪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들의 육체가 사라지더라도 이 의(意)와 념(念, sati)의 기능인 '앎' 은 사라지지 않고 항상 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여본성의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사윤회의 고통을 받고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이 의(意)는 인식대상과 감각기관이 접촉할 때 그 정보가 마음에 입력되어 마음 표면에 상을 맺게 하는 기능으로써 인식대상 전부 즉 6감의 모든 상을 모두 마음속에 맺습니다.

그리고 싸띠(sati, 念)는 마음작용의 모든 과정을 알아차림하는 핵심기능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루는 핵심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意)와 싸띠인 염(念)을 단련시켜서 진여본성과 상응하게 하여 깨달음의 증득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염불수행이나 참선수행인 것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흠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⑱ 사유 중지의 경 ①

바르게 멈추고 지켜보라

"수행승들이여, 세상에서 수행승은 어떤 인상에 관해 그 인상에 정신적 활동을 일으켜 자신 안에 탐욕과 관련되고, 성냄과 관련되고, 어리석음과 관련된,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들이 일어나면, 그는 그 인상과는 다른, 착하고 건전한 어떤 인상에 관련된 정신활동을 일으켜야 한다. 그가 그 인상과는 다른, 착하고 건전한 어떤 인상에 관련된 정신활동을 일으키면, 탐욕과 관련되고, 성냄과 관련되고, 어리석음과 관련된,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들이 버려지고 사라진다. 그것들이 버려지면 안으로 마음이 확립되고 가라앉고 통일되고 집중된다."

'건전하다' 는 말은 현상적 의미로 쓰일 때와 사실적 의미로 쓸 때가 있다. 현상적 의미로 본다면 '건전하다' 는 것은 법규나 예의에 의한 일상사의 보편적인 일들을 건강하고 온전하게 잘 지키고 있을 때를 말한다. 누구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무엇이 건전한 의식 활동이고 무엇이 불건전한 의식 활동인가를 알고, 현상 안에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적 의미에 집중해서 보면 일상사의 문제가 아닌 진리의 문제가 되고, 언어나 예의, 지식이 개입할 수 없는 일이 된다. 이때에 '건전하다' 는 것과 '불건전하다' 는 것은 구분할 수 없는 같은 것이 되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깊이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사유를 한다고 할 수 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것은 '사유' 라기보다는 지식이나 법규에 대한 이해력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건전한 것과 불건전한 것은 왜 같은 것인가? 이 두 가지는 무엇을 하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수반한다. 둘 다 '나' 라는 관념이 생긴, 그때의 조건으로 나누어지는 분별심이지 진리에 대한 구분 없는 지혜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행을 지어가다 보면 무엇이 올바른 수행인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또 무엇을 조금 잘못하고 나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자책을 하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반복은 수행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그것은 고쳐지지 않고 수레바퀴가 자국을 남기듯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 당시에도 그러했겠지만 지금도 수행자들은 '무엇이 올바른 수행인가' 에 대한 해답을 끊임없이 탐구한다. 이 문제의 해결은 생각보다 쉽고 간단하다. 바로 '멈추고 지켜보는' 것이다. 어릴 때, 햇빛을 이용해 돋보기를 종이 위에 대고 불을 일으켜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초점을 정확하게 맞춘 다음, 잠시 멈추어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면 곧 맞추어진 초점이 타면서 연기가 피어나고 곧 종이에 불이 붙는다. 특히 태양이 가까운 한여름에 불꽃이 더 쉽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으로 알 것이다. 이것처럼 불을 일으키는 것은 적당한 때에 빛과 돋보기의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고 기다리면 될 뿐이지, 공연히 내가 불을 붙이려고 이리저리 움직이며 내 생각으로 엉뚱하게 초점을 맞추려고 하면, 불이 붙는 일이 더디고 힘들어질 뿐이다. 내가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님을 간파하면 된다.

수행은 돋보기로 불을 일으키는 일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나' 라는 것으로 무엇을 알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수고로움만 있을 뿐이지 영원히 알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것이 사실적 의미의 건전한 정신활동이다. 멈추고 지켜본다. 한자로 말하면 지관(止觀)이다. 멈추는 것은 선정이고, 관찰한다는 것은 지혜이다. 변화하는 것에는 마음을 멈추고, 스스로에 대한 관찰을 키우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변하는 것을 잡고 알아보려 하지만, 찰나에 다시 변해버리는 것이니 알았다 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지혜는 스스로에 대한 앎,
스스로의 다른 이름이지 무엇을 알아낸 앎이 아니네.
지혜를 무엇을 알아내는 것이라 착각한다면,
지혜는 영원히 알 수 없네.
다만, 모양과 소리가 내가 될 수 없다는 그 앎,
항상 지켜보면 지혜는 절로 샘솟네. 〈(사)여시아문 선원장〉

침향

(주)선우아이비오에서는 고품질의 침향(Agarwood)을 원료로 하여 국내에서 직접 생산, 유통하고 있습니다.
화학향료, 염료, 접착제 등은 일체첨가하지않은 천연의 향입니다.
진정한 침향의 향기를 느껴보세요.



주식회사 선우아이비오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141 (쌍문동) | TEL .02)998-7940
선우몰 www.sunwoomall.co.kr | sunwooibo@hanmail.net

사)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 2022년 학술세미나

근대제주불교역사
그리고
그 진실을 찾다 II

'모든 역사는 시작이 있고 흔적을 남긴다'
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에서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근대제주불교역사 정립과
실존인물의 참 업적 발굴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동참과 근대사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일 시 | 2022년 05월 21일(토) 오후 2시~오후 5시
장 소 | 제주 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 다목적홀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연락처 | 010-9185-1004

사단법인 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



김서정의
절집나무이야기

⑨ 충남 논산 관촉사 왕벚나무

과학과 의미부여 사이에 화사해지는 건 '나'

관촉사거리에서 관촉사까지 3킬로미터 정도 심어진 벚나무는 수많은 종류 가운데 왕벚나무에 속하는데, 2013년 국립수목원이 전국 벚꽃길 20선을 추천할 당시에 선정될 만큼 아름다운 길로 알려져 있다. 수령이 궁금해 택시기사에게 물으니 1970년대 중반 무렵 박정희 前 대통령이 이곳을 다녀가면서 심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50년이 넘어가 죽어가는 나무도 더러 있어 새롭게 정비를 해야 한다며 안쓰러운 표정을 짓는 것 같다.

빠르게 지나치는 나무들을 보는데, 간혹 꽃을 피우지 못하고 기울어져 가는 자태들이 언뜻 밟혀 짠해진다. 그동안 사람들을 즐겁게 한 대가치고 가혹해 보이는 건 자연의 나무와 거리의 나무는 생의 주기가 많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자연이고 어떤 거리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도시 공해가 좋을 리는 없고, 특히 숲에서는 뿌리가 연결되어 도움을 주고받는 데 간격이 정해져 있는 구획의 공간에서는 홀로 고군분투해야 한다. 게다가 많은 잎을 피워 에너지를 충당할 만하면 툭툭 전정을 당하는 처지라 애틋한 연민을 저버릴 수 없다.

그런데 모든 것은 찰나에도 변한다고 반야산 관촉사 일주문을 뒤덮고 있는 듯한 무성한 왕벚나무 꽃잔치에 그만 입을 헤벌리고 만다. 지금 절집에 가는 건지 꽃대궐에 입성하는 건지 애매한 경계가 무색할 만큼 하얗게 햇빛을 반사시키는 극락의 순간에 멈칫 서서 황홀지경에 빠진다. 그것은 중국의 지안 스님이 석조미륵보살입상을 보고 마치 촛불을 보는 것 같이 미륵이 빛난다고 해서 관촉사로 이름 지었다는 유래와 연결되면서 찰나가 푹푹 쌓인 하루의 일정에 감사를 하고는 경내로 향한다.

눈도 마음도 화사해져 풍선처럼 가벼워진 몸으로 천왕문을 지나는데, 잎도 꽃도 아무런 조짐을 보이지 않아 수피만으로 동정할 수 없는 키 큰 나무들이 압도를 한다. 바닥을 훑어서라도 살필까 하다가 은진미륵이란 이름이 친근한 관촉사의 상징 석조미륵보살입상을 마주하기 위해 가파른 계단을 훌쩍 오른다.

고려 광종(968년) 때 왕명을 받아 혜명이 창건했다는 관촉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인 마곡사의 말사로 호국사찰을 표명하고 있다. 후백제의 마지막 격전지였던 논산 일대에 고려 왕의 존재감을 공표하는 것과 동시에 민심을 얻기 위해 위로의 표시로 은진미륵을 조성했다는 반야산 중턱에 들어서면 멀리 계룡산까지 이어지는 평야에 넋을 잃는다. 그래서 오랫동안 백제의 백성으로 살아온 이들이 어디서든 보이는 관촉사와 은진미륵을 경배하면서 고려의 백성으로 살려는 다짐을 했을까 의구심이 드는데, 신은영의 '관촉사 석조보살연구'를 보면, 후백제의 서기 어린 땅과 원한 품은 백성들의 결합을 차단하기 위해 '비보(裨補)' 차원에서 18m가 넘는 상징물을 조성했다는 견해도 있다. 이는 모두 야외에 세워진 미륵불에 대한 이야기인데 BTN이 방영한 관촉사 내용 가운데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은 높이 30m 정도의 보호 전각이 있었는데, 유지가 어려워 조선 후반기에 없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충남 논산 관촉사 왕벚나무.

커다란 권력에 짓눌려 희망을 잃은 이들에게 살아갈 이유를 던져준 은진미륵 앞에 서니 결국 나의 삶을 결정할 이는 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다. 그것은 은진미륵을 덧씌운 평가들 때문인데, 은진미륵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는지를 떠나 그에 대한 미학적 잣대가 분분한 게 모두 그들의 관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경향신문 이기환 역사 스토리텔러가 정리한 은진미륵 관련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균형미는 없다. 머리 부분이 지나치게 크고 면상(面相)이 평범하며 의상의 수법이 간결하다"(세키노 다다시)도 있고, "중후하고 역강한 힘을 느낄 수 있는 조형미를 갖췄고 통일신라와는 완전히 다른 파격과 신비의 미적 감각을 담은…가장 독창성 짙은 불교조각"(문화재위원회 국보심의회의)도 있다.

한때 왕벚나무 원조를 두고 우리의 나무인가, 일본의 나무인가 논쟁이 치열했는데, 2018년 제주도 왕벚나무 다섯 그루의 유전체 분석을 통해 서로 다른 나무로 결론을 내린다. 그런데 최근 이 가운데 한 개체가 일본 왕벚나무인 소메이요시노와 동일한 유전체를 갖고 있다는 결과 때문에 우리가 보는 수많은 왕벚나무들이 제주 자생 왕벚나무인가, 일본 재배 왕벚나무인가,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제주 자생 왕벚나무 235그루 유전체를 전부 분석해야 하는데, 개체당 1억 원이 드는 비용이 문제가 된단다.

수많은 벚나무 종류 가운데 왕벚나무가 유독 눈에 띄는 건 잎이 나기 전 꽃만으로 뒤덮인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상하듯 빨리 지기 때문인데, 이는 매개곤충을 한꺼번에 불러들이는 번식 전략이다. 즉 왕벚나무 입장에서는 과학인데, 우리는 거기에 여러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인지 무엇이든 보는 내 마음이 중요한 것 같다. 은진미륵이 건네주는 따듯한 미소를 껴안고 있는 그 앞 왕벚나무를 보는 내 마음에 집중해 본다. 오직 나만이 화사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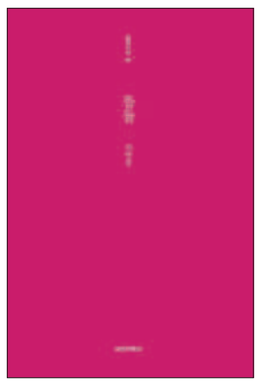
〈작가 겸 숲해설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⑨ 최영철의 '와불 지나며'

부처님오신날엔 모두가 동등한 '一花'



최영철 시집, 《돌돌》, 실천문학사, 2017

와불 지나며 / 최영철

산에서 도적을 만난 늙은 중이 가진 것을 다 내주고 나서 말하였다. 그래도 의심스러우면 풀로 나를 가두시게 도적은 웃으며 근처의 풀을 당겨와 중을 묶어두고 떠났다 곧 밤이 오고 매서운 바람이 소리치며 칼을 휘둘렀다 풀이 다칠까 봐 중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바람이 휘두른 채찍에 중의 몸은 새파랗게 얼어 있었다 뿌리치고 나오면 그만이었으나 중은 또 다른 도적이 나타날 때까지 몇 날 며칠을 그대로 있었다 새 도적이 비웃으며 묶인 중을 풀어주었으나 제 몰골은 아랑곳 않고 풀이 다친 데는 없는지 한참을 살폈다

누더기를 얻어 몸에 걸친 중이 한 집에 들어가 먹을 걸 구했다 불쌍히 여긴 주인이 부엌으로 간 사이 집오리가 제 주인이 만지던 옥구슬을 냉큼 삼켰다 포식이라도 한 듯 뒤뚱뒤뚱 광으로 사라졌다 주인이 묻자 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인은 중을 두들겨 패고 광에 가두었다 중은 밤새 배앓이를 하는 집오리의 배를 어루만졌다 자신의 배를 가른다고 해도 절대 말해서는 안 될 것이 있었다 거위는 다음날 옥구슬을 개울에 내놓았으나 중은 더 견고한 옥에 갇혔다 중은 아직 옥에 있다 그 집 마당을 돌아다닐 거위 생각을 하며 빙그레 웃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에 음미하기 딱 좋은 시다. 게다가 '풀이 다칠까 봐 중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니, 제 몰골은 아랑곳 않고 풀이 다친 데는 없는지 한참을 살폈다'니, 이런 어리석은 동체대비(同體大悲)가 어디 있겠는가.

그것으로도 모자라 중은 주인 몰래 옥구슬을 '냉큼' 삼켜버린 집오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집오리 대신 주인에게 죽도록 두들겨 맞고 광에 갇혀서도 (옥구슬로 포식한 탓에) '밤새 배앓이를 하는 집오리의 배를 어루만'져 주고 있다. 이런 바보 같은 인간이, 멍텅구리 같은 인간이, 천치 같은 인간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있다. 그런 천치 같은 인간이, 바보 같은 인간이, 멍텅구리 같은 인간이 있다, 불교에. 오늘 생일을 맞이한 고타마 싯다르타가 바로 그런 얼간이다. 멍청한 것으로 치면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멍청하고, 독존(獨存)으로 치면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독존하는 모질이가 바로 고타마 싯다르타인 것이다.

고타마 싯다르타의 그런 치명적인 모자람(?)은 탄생게(誕生偈)에 잘 나타나 있다. 아니,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서 오직 나 홀로 존귀하고'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 '삼계가 모두 괴로움이지만 내가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한다' [삼계개고 아당안지(三界皆苦 我當安之)]라니, 이런 독선과 아집과 꼰대식 고루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래서 고타마 싯다르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바보고 멍텅구리고 자기 혼자만 잘난 체하는 천치인 것이다. 그러나 그래서 또한 고타마 싯다르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깨어 있는 성자(聖者)이고, 견자(見者)이고, 동체대비의 '옥구슬'인 것이다. 최영철 시인은 이를 또 이렇게 그리고 있다.

노스님 한 분 석가와 같은 날로 입적 잡아 놓고
그날 아침저녁 공양 잘하시고
절마당도 두어 번 말끔하게 쓸어 놓으시고
서산 해 넘어가자 문턱 하나 넘어
이승에서 저승으로 자리를 옮기신다

고무줄 하나 당기고 있다가 탁 놓아 버리듯
훌쩍 떨어져 내린 못난 땡감 하나
뭇 새들이 그냥 지나가도록 그 땡감 떫고 떫어
참 다행이었다고 나는 생각하고
헛물만 켜고 간 배고픈 새들에게
참 미안한 일이었다고 땡감은 생각하고

노스님을 떨구어낸 감나무
이제 좀 홀가분해 팔기지개를 켜기 시작하고
'통도사 땡감 하나' (최영철 시집, 〈호루라기〉, 문학과지성사, 2006)

언뜻 보기에 '땡감' 처럼 못나고 쓸모없는 것도 없다.

실하게 골붉은 다른 감들을 위해 스스로를 걸러내는 아름다운 낙과, 그런 '땡감'이기에 고타마 싯다르타는 치명적인 얼간이고, 치명적인 바보이고, 치명적인 독존이고, 치명적인 모질이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게 또한 고타마 싯다르타가 치명적으로 넓고 낮은 동체대비의 삶, 마당의 삶, 풀의 삶, 거위의 삶을 살았다는 증좌이기도 하다. 고타마 싯다르타의 위대성과 실존적 역사성은 여기에 있다. '부처님오신날'이 거룩하고 존귀한 것도 여기에 있다.

이제 밝힌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 아당안지'는 독선과 고루와 독단이 아닌, 가장 낮고 넓고 존엄한 생의 바탕(뿌리)이다. 생의 이타적(利他的) 측면에서 모든 인간(생명)은 스스로 존귀하고 고귀하고 존엄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부처와 늙은 중과 풀과 도적과 바람과 옥구슬과 주인과 집오리는 모두 동등하다. 그래서 '부처님오신날'은 모두가 동등한 '일화(一花)'의 날이기도 하다.

〈불교문학연구소장〉





문현공 교수의 죽음학과 불교 ❺ 죽음명상1 –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



▶한줄요약
죽음에 대한 마음가짐은 삶에대한 자세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 자살 막는다

이제까지 연재를 통해 죽음의 정의, 죽음에 이르는 과정, 공포와 불안 같은 죽음을 대표하는 정서들을 살펴보며 죽음에 대한 이론적 측면을 알아보았다. 이론에 대한 탐색 이후에는 실천적 측면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불교에는 죽음을 명상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 (maraṇassati, mindfulness of death)이 있다.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마음챙김이란 어떤 것인지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마음챙김은 초기불교의 대표적인 수행으로서 경전에서는 '싸띠(sati)'로 표현된다. 이는 한국어로는 '마음챙김', 영어로는 'mindfulness'로 번역된다. 마음챙김은 국내의 의학 및 심리학계에서 중요한 주제로 자주 다루어지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 서구사회에서는 국내보다 더욱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특히, 2004년 입적하신 한국의 숭산 스님에게 지도를 받기도 했던 존 카밧진(Jon Kabat Zinn)은 마음챙김을 적용한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MBSR)' 프로그램을 개발해 불교 명상이 유방암, 전립선암, 피부 건선(psoriasis) 등 만성통증을 일으키는 질병에 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아울러 마음챙김은 신체질환 뿐 아니라 불안장애, 우울증, 강박증,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등 정신질환에도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약 2500년 전의 불교 수행이 현대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며 효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다.

빨리어(Pāli) '싸띠(sati)'는 '주의를 기울임', '의식하기', '알아차림' 등을 뜻한다. 싸띠는 '기억하다'라는 의미인 어근 √smṛ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기본의미는 '기억'이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기억은 과거에 대한 '추억' 같은 기억이 아니라 '현재를 기억하고 있는 것' [憶念]의 의미로 '흘러가는 지금의 순간을 놓치지 않는 상태', '바로 지금의 순간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기억이 작동하고 있는 상태(지금의 현재)를 뜻하는 것이다.

우리는 외출할 때 지갑과 스마트폰을 꼭 챙긴다. 카드나 현금이 없으면 어느 것도 할 수 없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연락이 단절되며 지루한 시간도 견딜 수 없다. 집을 나설 때 하나라도 깜빡했다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챙긴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아침에 '오늘은 행복하자', '우울해하지 말자', '화내지 말자' 등 하루하루 우리의 마음을 잘 '챙기고' 있는가. 말 그대로 마음챙김은 우리가 귀중품을 챙기듯 '순간순간 마음을 잘 챙기는 것'을 뜻한다.

마음챙김의 상세한 방법은 〈대념처경(Mahāsatipaṭṭhāṇasutta)〉에 나타난다. 경에서는 몸(身), 느낌(受), 마음(心), 법(法, 붓다가 설한 진리)의 네 가지[四念處:사념처] 영역에 대한 마음챙김의 방법을 설명한다.



더불어 〈앙굿따라니까야(Aṅguttara Nikāya)〉에서는 '붓다(Buddha), 법(法, dhamma) 승(僧, saṅgha), 계(戒, sīlā), 보시(布施), 천신(天神, deva), 들숨날숨(ānāpāna), 죽음(死, maraṇa), 몸(kāya), 적정(寂靜, upasama)' 등 10가지 마음챙김의 대상을 제시하는데, 본 글에서는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을 상세히 살펴보겠다.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은 〈앙굿따라니까야(Aṅguttara Nikāya)〉의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 경(Maraṇasatisuttaṃ)'에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경에서 붓다는 제자들에게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 수행을 강조하며 제자들에게 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질문했고 여섯 명의 제자가 각각 다음과 같이 붓다의 질문에 답했다.

"스승이시여 저는 '내가 하루 밤과 낮 동안 밖에 살지 못하더라도 세존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긴다면 나는 충분히 수행한 것이다' 이렇게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고 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내가 하루 낮 동안밖에 살지 못하더라도 세존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긴다면 나는 충분히 수행한 것이다' 이렇게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고 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내가 한 입의 음식을 씹어 삼키는 동안밖에 살지 못하더라도 세존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긴다면 나는 충분히 수행한 것이다' 이렇게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고 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동안밖에 살지 못하더라도 세존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긴다면 나는 충분히 수행한 것이다' 이렇게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에 붓다는 "하루 밤과 낮이 지나고 죽음이 온다거나, 하루 낮이 지나고 죽게 된다거나 하는 태도는 방일한 것이며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을 예리하게 닦지 않는 것이다"라고 지적한 뒤, "음식을 한입 씹고 삼킨 뒤에 죽게 된다거나,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쉰 뒤에 죽음에 이를 것이라는 태도는 절실하고 예리하게 마음챙김을 잘 닦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는 안일한 마음으로 죽음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죽음이 곧 나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죽음을 가까이하라는 의미이다.

죽음 마음 챙김의 효과는
삶을 긍정적 태도로 변화
자살예방·죽음수용 증대
사전 검토 교육 병행해야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의 핵심은 죽음을, '하루 밤과 낮 이후', '한 입의 음식을 씹어 삼킨 이후', '숨을 들이쉬고 내쉰 이후'처럼 죽음을 '시간'과 연관지어 가까이하는 것이다.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라는 막연한 태도는, '삶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다음 주면 나의 삶이 끝난다'라는 구체적인 시간 단위와 죽음을 연결하면 죽음에 대한 생각이 진지해지고 절실해진다.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이 '마음챙김(sati)'의 틀 안에 있다는 점은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이 체계적으로 죽음을 가까이하는 방법이며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드러낼 가능성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마음챙김 명상은 척추를 곧게 세우고 가부좌의 자세를 유지하는 '신체적 자세'와, 숨을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는 '호흡법', 그리고 지금의 생각을 놓치지 않고 주시하는 '정신적 자세'를 함께 포함하며 국내외의 수많은 연구에서 마음챙김의 육체적 · 심리적 효과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 경에서 붓다는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으면 큰 결실과 공덕이 있고 불사(不死)에 이르는 방법이다. 그대들은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아야 한다"고 설하며 죽음 명상이 훌륭한 결실을 가져오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넘어서는 방법이라 말한다. 하지만 의학과 심리학계의 마음챙김의 효과에 관한 연구처럼 보다 구체적으로 현대인에게 보여줄 효과는 무엇일까.

죽음을 가까이하는 것의 첫 번째 효과는 '삶에 대한 태도의 변화'이다. 죽음교육은 '죽음준비교육'이라는 명칭으로 청년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종종 실시되고 있는데 연구에 따르면 죽음 교육이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well-being)을 증가시켰다는 연구들이 있다. 또한 공포 관리 이론에서는 죽음에 대한 의식이 삶의 외면적 가치(돈, 외모, 건물, 사회적 지위)보다는 내면적 가치(사랑, 평화, 관용, 용서, 화해)를 중시하게 했다고 보고하기도 한다.

죽음을 가까이 함으로서 삶의 남은 시간이 정해져 있음을 각성하게 되면 자신이 살아온 삶을 회고하고 그동안 추구해왔던 삶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주어진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있음을 자각하면 무덤 속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 무엇인지, 내 삶의 이유는 무엇인지,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사유해 볼 '생각의 틈'이 생겨나는 것이다.

두 번째 기대효과는 자살예방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이며 청소년 사망원인 1위도 자살이다. 정부와 학계에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근원적인 측면에서 자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살 방지(防止)보다는 '자살 예방(豫防)'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여러 정책들은 자살을 결심하고 실천으로 옮기기 '직전'에 맞추어져 있다. 이는 마치 말기 환자를 치료하는데 중점을 두는 경우와 유사하다. 결핵, 수두, 장티푸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접종은 생후 4개월 이후부터 만 12세 이전까지 실시하여 인체 내에 항체를 형성하게 만든다. 말 그대로 '예방'(豫防)은 '미리 방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근본적인 자살의 예방은 자살이나 죽음 교육이 이른 시기부터 시작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죽음교육의 실시를 통해 죽음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바로잡고 태어남과 동등한 속성이자 자연의 일부인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함양해 죽음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바로 잡을 수 있다. 죽음에 임박해서가 아니라 삶 속에서 미리 죽음을 생각해보는 것은 인간다운 삶, 참된 삶에 대한 사고의 힘을 갖출 수 있다. 실제로 죽음교육을 통해 피교육자가 자신의 죽음을 각성해 삶을 돌아보았고 이는 자살 의도가 감소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죽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자살 위험성이 감소했고 삶에 대한 긍정적 지표가 증가했다는 연구도 있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가까이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수용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수용이란, '잘 받아들이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 경'에서는, "스승이시여 저는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동안밖에 살지 못하더라도 세존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긴다면 나는 충분히 수행한 것이다' 이렇게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문장은 '-후에 죽더라도, -한다면 -할 것이다'라는 조건절의 구조이다. 다시 말해, 만약 나의 죽음이 오더라도 내가 '-한다면', '충분히 -한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죽음이 나에게 오더라도 괜찮다,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죽음을 마음챙김 하는 것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세, '죽음을 수용하는 힘'을 증가시키는 기능도 포함된다.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을 통해 죽음을 가까이 하는 것은 삶과 죽음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바로잡고, 충동적으로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죽음을 선택하지 않도록 예방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가 맞이하게 될 죽음을 하나의 자연적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힘을 길러 줄 것이다.

하지만 말기환자, 임산부, 우울증 환자, 어린이, 초고령층 등 교육대상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사전검토 작업 없이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이나 죽음교육을 실시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죽음 명상과 죽음 교육 전문가들의 조언을 참고하거나 관련 자료들의 심층적인 분석 이후에 죽음 명상이나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동국대 응용불교학 전공 조교수〉

일일시호일

"엄마, 소리 한 번이라도"…
심장 혈관 막혀 생사 갈림길 선 아기

희망 찾아 베트남에서 온 후이티공씨 부부…4년 만에 후이뚜언 출산
심부전 등 진단 산소호흡기 없이는 호흡불가…병원비만 수천만원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87호 | 15 | 전면광고

인자하여 생물을 죽이지 않고 말을 삼가고
마음을 지키면 거기는 죽음이 없는 곳,
어디를 가나 근심 없으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법구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우주광명 「누진통」「천안통」 시공을 초월한 수행법

단 한시간이면 업장소멸, 번뇌가 사라져 무상무념이 되고 해탈이 되어 매일 선정과 삼매에 들어 깨달음을 이루고 병고액난의 고통과 삼악도에서 벗어날수 있음.

일광합장 010-3586-6091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입종 동참 안내

불교정신문화원, 불교수련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불교문화정원, 불교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상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사찰건축전문

문화재기능962호
대웅전 종 각
일주문 삼성각
원명 010-4300-9104



추천-책이름검색 해보세요!!

49재 · 천도재 · 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 • •
경상도 고향인 30대 후반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주소 : 함안군 군북면 밀림사
주지 : 지웅 합장(76세)
• • •
010-6893-5040

• • •
부전(기도)스님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 •
010-8620-4303

• • •
부전스님
모십니다.
• • •
010-2078-9595

• • •
비구니스님 안내
포교원 할분, 서울시내
부전 기도스님 일할분, 쓸분
사주, 철학 실력자 모심
남여 결혼할 분
서울 명동 결혼
• • •
010-5381-1419

입멸후 2,566년만에
처음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놀라운 유훈을
완전히 공개한다!!
※ 신간 ※
『대반열반경의 비밀한 뜻을 밝힌다』
010-3514-7084

卍佛寺 프로그램

- 삼재 방생풀이 음력 입춘 - 삼진날까지 비바람 불면 연기, 매일 11시 비구니스님 성지 불사 개회
- 쥐 · 용 · 원숭이 1인 5만원, 양초 3천원, 이름 써 드림, 공양미 1kg 2천원
- 서울 전철 아산신창행 - 도고시내버스 - 신통리
- 농협 351-0881-7941-93 조계종 만불교
- 아산시 신통길 192-21 (지장보살 모신 절)

접수 문자 010-3410-0004
041-544-4441

잘 사는 방법을

스님께만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성명학 · 타로 · 절간사주 · 비법

절간사주 · 타로 · 인상학 · 수상
특별비법 비구니 스님께만 전수 수강료 100만원
★간절하게 꼭 배우고 싶은 비구니 스님만 문의 주세요★
아로마테라피 1급강사 ◈ 아로마테라피와 싱잉볼명상 전수해드림 ◈
문의전화 010-6284-6172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상담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틱장애, 가정·사업 문제, 심령치유, 장기요양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청정지 해남 새로운 삶의 기를 받아 가세요!
견성원 문의전화 010-8208-7836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民佛宗秘法傳修院

鬼門神功 귀문신공 知止神功 지지신공
六爻神功 육효신공 不立神功 불립신공
※다음까페 꼭 참고, 장애스님, 보살무료
Daum Cafe.daum.net/yokhak 역학대통령 ▼
직통 02-991-1207, 907-5858

수강생 모집

명리학기초부터
길흉판단 · 작명
단시일내
* 삼송정사 *
010-9323-5693

효사연락

010-5962-4600
효사비결 CD프로그램 교환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구입 문의 | 02-732-1520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로즈마리
판매가 : 15,000원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87호 | 16 | 전면광고

여러 악한 종류에 무리들이 많지 않게 하며 모든 악이 다하고 스러져서 스스로 사람을 여의게 하며 모든 악한 생각들은 생각함이 없게 하며 가령 이렇게만 된다면 누가 세간을 즐기지 않으리까.



부처님 말씀 읽기 - 《수행본기경 출가품》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대지 : 25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
◎ 매가 : 40억5천

◎ 위치 : 부산시포교원
◎ 입지좋은근린상가
◎ 건평 : 약100평
◎ 주차,공원,아파트
◎ 매가 : 12억5천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안내 가람

- 경북 영덕 저렴한 토굴 매매
- 부지 총면적 : 393㎡(119평)
- 건물 총면적 : 122㎡(37평)
- 가액 : 1억8천만원

사진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매매안내가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중랑구 봉우재로203-1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 잡종지내의 대지 143평
- 가액 : 1억5천(조정 조금 가능)
- 가전제품 보시합니다.
- 당일법회 가능합니다.
- 현재 운영중입니다.
- 법사님, 보살님도 환영합니다.

010-4180-1788

3층 상가주택 안내

- 위치 : 김천시 부곡동
- 대지 약 98평
- 1층 : 상가3칸 세나옴
- 2층 : 주택 전세3천
- 3층 : 학원하던곳, 포교당자리
- 가액3억에서 3천만원 빼드림

010-4999-5622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소재
- 대지 : 350평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 건물 : 약 80평 (법당, 요사채)
- 가액 : 4억 8천만원

010-7710-8334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 한림면 사찰
- 2층건물 70평, 법당, 친견실, 산신당, 용왕당, 칠성당, 샤워실, 공양간및 주방
- 권리금 협의가능
- 전세금 500만원
- 월세금 45만원

010-3945-8859

아름다운 사찰안내

- 전원주택형 요사채 25평, 법당 33평
- 정자(3m×5m) 원목 산사음악회 무대
- 총대지 300평 (정원 조성 잘되어있음)
- 진주 합천 중간지점(각 20분 소요)
- 삼존불, 영단, 신중단, 지장단, 소불(한쪽벽면),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언제든 양도가능, 경남 의령군 소재
- 가액 : 협의(은행융자 5천만원)

010-2607-7114

예쁜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내권
- 대지 : 약 173평
- 건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 4평
- 요사채 1동 약20평, 2층 약5평 1동 약25평
- 가액 : 3억 3천(절충가능)

010-4999-56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서포면
- 부지 : 대지,전,답 1,800여평
- 바닷가 부근
- 대웅전, 주지실, 큰방
- 가액 : 13억

010-9178-6397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평수 : 600평
- 가액 : 5억(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무허가)

010-3128-239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괴정동 소 도로에서 25미터
- 대지 100평 3홉 건평 40평정도
- 스님유고 관계로 양도합니다.
- 답사 하실분만 전화 요망
- 가액 : 2억 9천(절충)

010-9796-0825

사 찰 안 내

- 경남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1동 제일여고 뒷편 삼복도로
- 임야1800평, 대지60평, 전답120평, 법당20평, 삼존불, 용왕당, 요사체, 방4개
- 양도가 5억, 협의가능

010-8762-987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 대지: 600평, 주차 30대 가능
- 주건물 : 대웅전(53평), 요사채, 선방, 화장실 ● 부속건물 :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 가액: 답사 상담후 결정 (인연있는 스님께 크게 내려 양도)

010-8957-8089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구포 구명지하철역 5분거리
- 3층 / 48평, 엘리베이터, 법당, 방2, 주방, 삼존불, 주차장
- 보증금3천 / 시설비1천(절충가능) / 월세75만
- 건강상의 이유로 양도

010-8551-4360

멋진 법당 안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멋진 법당
- 상가 2층 60평(시설완비) 방2, 주방, 화장실3
- 넓은 옥상, 방음완비
- 민원없고 주차공간 넓음
- 가액 : 1억 2천만원

010-2857-281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전망좋은 사찰
- 대지 : 28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2동
- 많은주차, 남향집, 도시가스
- 가액 : 10억 5천만원

010-3269-1023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 - 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314쪽 | 12,6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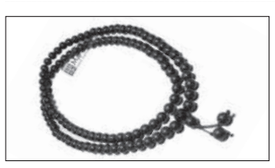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행 스님

우리의 마음은 무한량이 돼서 바다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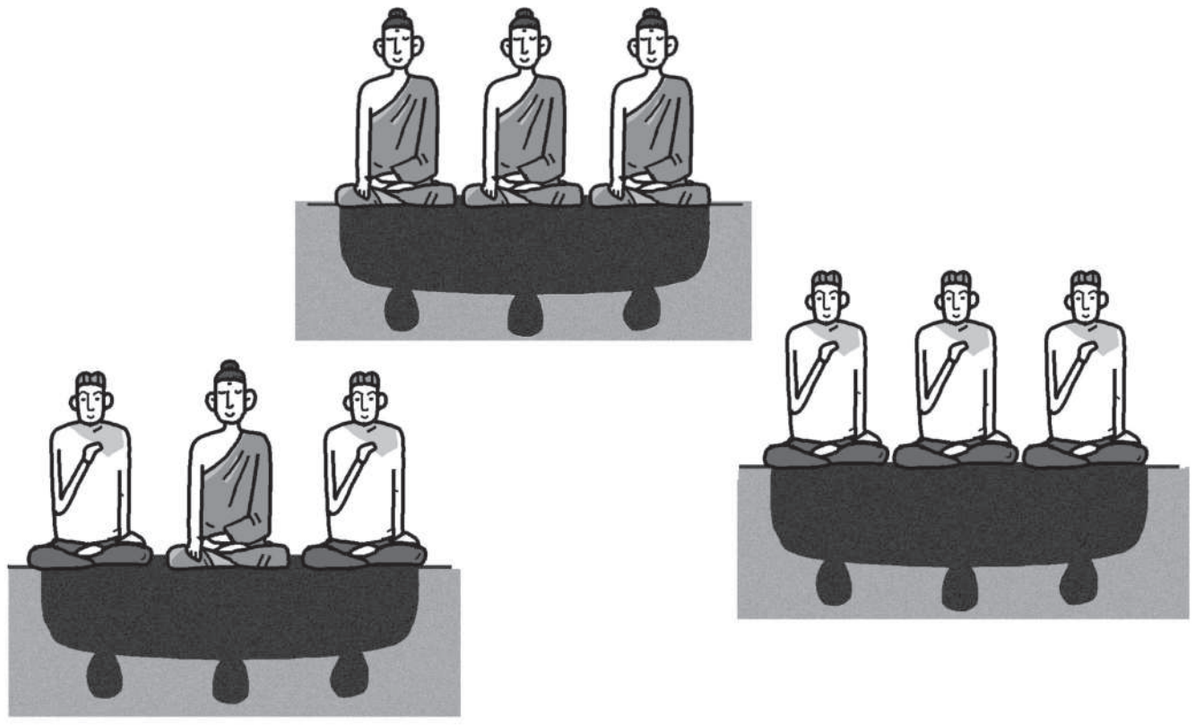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기 지원장 스님이 진리를 너무도 역력하게 가르치시기 때문에 내가 좀 등한시한다 하더라도 바로 지원장 스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지원장 스님 마음입니다. 비록 모습은 다르나 마음이 어찌 둘이겠습니까. 깨달음의 진리는 하나인 것이지 둘도 아닙니다. 그 깨달음의 진리를 안 스님이라면 바로 부처하고도 둘이 아니요, 내 마음하고도 둘이 아니요, 모두가 둘이 아닌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몸 떨어지기 전에 이 도리를 꼭 알아야 하는 문제가 개재돼 있습니다. 자기 주인공은 분명코 있습니다. 자기를 끌고 다니는 과거의 조상 말입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요다음에 다시 태어날 때, 현재 살면서 행동하고 말하는 그 모든 인연에 따라서, 가고 오고 행한 그 모든 업식의 차원에 따라서 각자의 삶이 주어지는 것은 바로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실에 주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살던 그 차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에 주어진 그 자체를 우리가 주인공에다가 되입력해서 업식을 녹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모든 것을 주인공이 한다고 믿고 거기다가 맡겨 놓을 수 있다면 틀림없이 진정한 참 자기의 소식을 발견하실 겁니다. 우리가 주인공을 믿지도 않고 등한시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를 믿지 않고 등한시하는 겁니다.

부처님 모습이 저기 계십니다만 저 부처님 모습이 바로 각자 자기 모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부처님은 한 분이지만 여러분의 모습이 그 모습과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일체제불의 마음' 이라는 노래를 부르셨죠? 마음도 둘이 아니요, 모습도 둘이 아니요, 생명도 둘이 아니요, 일상생활 속에서 해 나가는 마음 자체가 바로 일체제불의 마음과 둘이 아니게 행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못 믿는 겁니다. 나는 나다, 내가 망했다, 내가 잘했다, 내 자식이다 뭐, 일거일동 '나, 나, 나, 나'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부처님을 왜 부처님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아십니까? 부처님이란 부처님 한 분으로만 계셔서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부처님 한 분으로만 계신 게 아니라 법신, 응신, 보신 이렇게 연방 화하면서 이 중생이 원하면 그대로 한마음이 돼서 응해 주시고, 또 저 중생이 원하면 그 소원대로 응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파서 주인공에다가 맡겨 놓고 '당신만이 할 수 있어.' 할 때 그 부처님의 마음이 약사보살로 화하게 되죠. 당신 주인공의 마음과 둘이 아니게 결부가 돼서 바로 약사보살이 돼 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법에 저촉을 받았을 때 '당신만이 이 법에 얽힌 것을 풀 수 있다.' 하고 믿고 거기다가 맡겼을 때는 법신이 바로 한 찰나에 그 마음에 한마음으로 돼 가지고 엉킨 거를 다 풀어 주시고 한 찰나에 나가신다 이겁니다.

부처님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해서 얻어진 건 줄 아십니까. 이 세상 만물만생을, 죽은 중생이나 산 중생을 다, 하다못해 곤충 하나까지도 보살피지 않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곤충이 진화할 때도 반드시 부처님의 마음이 한마음이 돼 주셔서 진화가 됩니다, 진화! 모습이 바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진화할 때는 그 곤충의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 거기 한마음으로 들어서 지혜가 생기니까 능히 진화될 수 있는 차원이 돼서 진화가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길을 걸을 때 저런 나무도 그냥 나무로만 보시죠? 그러나 그 나무 속에는 목신, 즉 나무의 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명의 신. 그래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 보고 그 속도 다 안단 말입니다. 허영 그냥 저렇게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그런 것까지도 다 응해 주십니다. 그리고 응해 주시려면 벌써 그 모습으로 화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일체 만물만생이 다 부처님 아님이 없고 부처님 모습 아님이 없고 부처님 자리 아님이 없고 부처님 생명 아닌 게 없고, 이렇게 되니까 어떤 것이 될 때에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돼지를 건지기 위해서 돼지가 됐을 때 돼지 하나만 건지는 게 아닙니다. 돼지 하나면 수십억의 중생들을 건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돼지를 건지기 위해서 응신으로 화하셔서 돼지 속에 들어가서 삼 일을 있든 이레를 있든 거기에 물들지 않으시고 그대로 돼지가 화하게 모습을 바꿔 주고 나신다 이겁니다. 돼지뿐만 아닙니다. 그거를 모르시겠걸랑 가정에 어머니니 할머니니 아버지니 할아버지니 이렇게 한 가족이 함께 살고 계시는 것을 비유해서 말할 테니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아버지다 어머니다 하는데, 아내가 부르면 남편이 돼 가지고 있는데 자식이 "아버지!" 하면 남편이 됐다가도 자동적으로 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가 돼 가지고 있는데 어머니가 "얘, 아무개야!" 하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머니." 하고 아들 노릇을 한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 "형님!" 하고 부르면 그냥 "그래." 하면서 아들 노릇을 하다 금방 형님이 돼요. 장모가 부르면 금방 사위가 되죠. 한 가정에서도 한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은 이름들을 걸림 없이, 불리는 대로 아주 자동적으로 여여하게, 그냥 역할을 잘하고 가죠. 금방 "여보!" 하면 남편 노릇을 여여하게 하고, "아버지!" 하면 아버지의 노릇을 여여하게 하고 가죠.

그러니 남편 노릇 할 때를 나라고 할 겁니까, 자식 노릇 할 때를 나라고 하겠습니까. 아버지 노릇 할 때를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하고 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다 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부처님께서도 아촉이라는 이름, 아미타라는 이름, 관세음이라는 이름, 지장이라는 이름, 약사보살이라는 이름, 칠성이라는 이름, 독성이라는 이름, 지신이라는 이름, 용신이라는 이름, 보현신이라는 이름 등 뭐, 하고많은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많은 이름을 한 분이 다 가지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부처님 한 분 앞에만 갖다 놓으면 걸리죠? 이것도 해 놓고 저것도 해 놓고, 여기다 놓고 빌어라 저기다 놓고 빌어라 한다면 돈이 없어서 못 놓을 때는 '아이고, 저기 칠성에다 놓지 않아서 우리 자식들이나 남편이나 명이 짧아지면 어쩌나.' 요렇게 생각이 들죠. 신중단을 해 놓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신중단을 해 놓았으면, 부처님 앞에다만 놓고 거기다 안 놓으면 '이거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고민이 많을 것인데 지원장 스님이 그것을 다 면하게 해 주신 겁니다. 요기 놓고 빌어야 하고 조기 놓고 빌어야 하는 걱정 근심을 다 덜어 드렸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이름을 가지시고 이렇게도 화하시고 저렇게도 응하시고, 응신이 되시고 법신이 되시고 보현신이 되셔서 수시로 나투시고 계신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마음에 부처님을 진실하게 믿고 그런다면 원하는 대로 나투어 주실 겁니다. 일체 모든 생명의 근본은 다 똑같기 때문에 일체제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렇게 여여하게 모든 역할을 하시듯이 부처님도 여여하게, 여러분이 응해 달라는 대로 산신을 찾으면 산신도 되시고 아파서 찾으면 약사도 되시고 또 자식들이 물에 빠져 죽을까 봐 걱정을 할 때는 바로 용신이 돼 주신다 이겁니다.

마음이라는 건 무한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은 한량이 없어서 무한량이고 우주간 삼천대천세계에 그 부처님의 마음이 꽉 찼다 이 소립니다. 그 도리를 알면, 여러분 각자 주인공의 그 맛을 알면 맛을 아는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마음과 더불어 같이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비가 와서 빗방울이 다 한 그릇에 들어가도 두드러짐이 없이 한 그릇이듯이 우리의 마음도 무한량이 돼서 바다와 같다 이겁니다.

마음은 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마음을 쓰십시오. 관세음보살이라는 것도 이름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을 관해서 보고 관해서 듣고 관해서 지켜보고 말

☞ 18면으로 계속

www.boryeon.com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도량장엄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각종 시설물 제작·시공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도 량 장 엄 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 등 자 동 승 강 장 치

원 불 전

인 등

위 패

자기로부터 자기를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 17면에서 계속

하면서 자기 마음으로 자기를, 자기 몸뚱이를 다스리면서 돌아가는 것이 관세음입니다. 그래서 고삐와 소를 말한 겁니다. 소를 모는 목동과 같이, 자기 몸을 한데 떨어지지 않게 다스리면서 가다가 내 마음이 그렇게 다스려지면 그냥 그대로 관세음입니다. 관세음이라고 해서 바깥으로 높이 있는 관세음을 찾거나 자꾸 이름을 찾아도 그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관세음은 높은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낮은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직접 생활하면서 살아나가고 있는 자기가 바로 그대로 관세음입니다. 우리가 지켜보면서 듣고 말하고 그렇게 모든 생활 자체를 그대로 해 나가는 것이,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면서 체험하는 것이 그대로 참선입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입으로만 부르고 바깥으로 들입다 관세음보살을 찾으니 관세음보살이 대답이나 할 것 같습니까? 내가 나를 발견하는 것이 곧 관세음보살을 발견하는 거와 같다 이겁니다. 관세음보살도 이 '세상 세(世)' 자를 써서 세상 모든 것을 뜻하는 것으로 그 글자 그대로입니다. 이름입니다. 이 세상 이름,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름. 그러니 그 이름 속에 바로 참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물그릇을 놓고 '이 물그릇이 뭣고?' 하면서 아무리 돌려 가면서 봐도, 아무리 돌려 가면서 염하고 애를 써도 물맛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허탕입니다. 만약에 마음이 물그릇과 같다면, 물방울이 생기는 대로 여기 들어간다면 그냥 한 그릇이 돼 버리고 말죠. 그렇듯이 모든 걸 내 마음속에, 마음은 체가 없는 겁니다. 체가 없는 것을 체가 없는 데다 놓으면 두드러지지도 않죠. 체가 없는 데서 없는 것을 꺼내더라도 줄지도 않죠. 모든 것이 그렇게 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지원장 스님 같은 길잡이를 만나기가, 말하자면 눈먼 거북이가 물속에서 천 년을 공부하다가 한 번 딱 떠오르는데 구멍 뚫린 뗏목을 하나 만나서 거기 안식처를 두는 것과 같이 그렇게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스승 한 분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 너무나 지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예전에 그런 공덕을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지원장 스님 같은 길잡이를 만난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나 가톨릭교나 불교나 어디든 다 가 보십시오. 모두 타의에서 구합니다. '칠성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지장보살, 나를 좋은 데로 가게 해 주십시오. 부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산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온통 바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여!' 하고는 또 바깥으로 돌고 이럽니다.

그게 무슨 짝입니까. 자기로부터 이 세상이 벌어졌단 얘깁니다. 자기가 안 나왔으면 다 무효죠.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자기를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수억겁 광년을 걸쳐 미생물로부터 시작해서 곤충으로도 짐승으로도 태어나서 수없는 나날을 쫓기고 쫓으면서 갖은 고생 다 하면서 진화되어 인간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때서부터 그렇게 끌고 온 장본인이 바로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과거에도 끌고 다녔고 지금도 끌고 다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자성을 찾지 못한,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중생이요, 발견하는 사람은 그대로 법신이고 또 부처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내 몸뚱이 속에 수없는 중생들이 있는데 이 마음 하나 공부하면 한마음으로 뭉쳐져서 그 모든 중생들이 바뀌어집니다. 중생이 보살로 바뀌어집니다, 화하는 거죠. 바뀌어져 가지고 털구멍을 통해서 들고 나면서 중생들을 제도합니다. 이 마음 하나 공부하면 천백억화신으로 화하게 된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은 각자 자기 속에 수십억의 중생들이 들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하나로 인해서 수십억의 중생들이 제도가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하나가 몸과 행동과 말 등 모든 걸 다스리고 나가게 되면 몸속의 중생들이 다 다스리는 대로 진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업이라든가 유전성이라든가 영계성 업보성 세균성, 이런 문제들을 전부 타파하는 겁니다. 진짜로 거기다 맡기고 정말 믿어서 '거기서만이 해결을 할 수 있고, 거기서만이 이끌어 줄 수 있고, 거기서만이 낫게 해 줄 수 있고, 거기서만이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다' 는 그 사실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냥그냥 확확 화해 버립니다. 그리고 업이 무너집니다. 오간지옥이 무너지고 유전성이 무너지고 업보성이 무너지고 다 무너져서 내 생활도 차차 빛이 나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정이 화목하게 됩니다. 업보가 무너져서 악행이 줄어들고 없어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가정 살림이 좀 더 펴지고 가족이 융화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자식들을 키우는 것에 관해 또 한 가지 말하죠. 나가서 나쁜 짓을 한다든가 나가서 안 들어온다든가 뭐, 집안에서 속을 썩인다든가 공부를 안 한다든가 이런다고 해서 "야, 요놈의 새끼야! 배울 시기에 배워야지 부모가 애쓰고 벌어서 공부시켜 주는데 요렇게 놀다가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러느냐!" 하고 욕을 하고 온통 야단을 치고 붙접을 못 하게, 그저 잘못하는 대로 붙들고 야단을 치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겁니까? 여기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진짜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끔 해야 환하게 불이 들어와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저절로 부모의 마음을 따라 주게끔 되는 거지, 덮어놓고 말로 그냥 한몫해 버리면 외려 몸뚱이가 달아나가요.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면서도 '저놈의 집에 들어가면 또 귀찮고 냉랭하고 따뜻하지가 못하고 이럴 거야.' 이런다면 자연적으로 멀어져요. 들볶으면 남편도 역시 그럴 거예요. 부인도 자식도 그럴 거구요.

그런데 그것이요, 솔직한 얘기지만, 딸에게든 아들에게든 남편에게든 부인에게든 '마음을 고쳐 줄 수 있는 건 당신밖에 없어. 그렇게 안 하도록 하는 것은 당신밖에 없어.' 하고 한마음 주인공에 맡기면서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럽게 행해 주고, 아주 사심 없고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에요. 속에서 이런 게 치밀더라도 그 화나는 것을 거기다 맡겨야죠. 화가 나게 하는 것도 안 나게 하는 것도 거기뿐이니까, 화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화 안 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거기 있다 이거죠. 그러니 거기다가 맡겨 놓고….

왜 맡겨 놓으라고 하느냐. 아들이다 남편이다 부인이다 딸이다 이런 거를 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는 그 자체가 가설이 된 겁니다. 알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가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설이 된 전구에는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주인공에다 모든 걸 맡겨 놓고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럽게 행해 줄 때, 바로 그쪽까지 마음에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실천을 하면서 지켜보세요. 그러면 체험을 하게 돼요. 작든지 크든지 그렇게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실천해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귀한 줄도 알고, 아들 딸 남편 부인 모두 소중한 줄 알 겁니다.

> **아들이든 딸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 **주인공에다 모든 걸 맡겨 놓고**
>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럽게 행해 줄 때**
> **바로 그쪽까지 마음에 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모두 조건 있는 사랑을 합니다. 만약에 부인이 석 달이든 일 년이든 누워서 일어나지 못한다면 남편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픈 것도 하루 이틀이라야 하고 한 달 두 달이라야지, 만약에 일 년이 넘어갔다, 이 년이 돼 간다, 이건 일어날 수가 없다, 이럴 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신 아닌 배신을 하겠죠? 아마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도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일이 벌어지지도 않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남편을 그렇게 고생시키면서 오랫동안 드러누워 있지도 않을 것이며 모두가 같이 불이 들어오게끔 할 겁니다.

내 가정의 가족 모두에게 불이 같이 들어오게 되면 이 세상에도 같이 들어오고, 세상에 불이 같이 들어오게 되면 우주에도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그냥 '저이는 그냥 저렇게 말을 하는 것이려니….' 하고 듣고 있죠, 예? 우주에 불이 같이 들어온다니까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막연히 그냥 듣고만 있을 테죠.

쉴 사이 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혹성이 돌아갑니다. 은하계도 마음의 생명의 그 근본 자리에서 돌아가니까 천체가 돌아갑니다. 돌아가니까 돌아가는 대로 바로 태양에 연결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 태양은 우리들 마음을 따뜻하게, 모든 만물을 따뜻하게 해서 길러 주는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아주 따뜻한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달은 밝음과 청정함을 말하고 해는 따뜻한 것을, 지혜를 뜻합니다.

그래서 꽃들이 가지각색으로 많듯이 사람도 그 마음 그릇의 꽃이 천차만별로 돼 있단 얘기죠. 그런데 수많은 이름의 꽃들이 있더라도 꽃이라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가지가지 꽃의 이름이 있어도 꽃이라는 것만은 하나입니다. 사람도 갖은 사람이 있지만 사람이라는 건 하나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것저것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께서도 그러셨지만, 왜 이것저것 다 없다고 하느냐 하면 주인공 하나만 가지면 모든 게 해결이 날 것을 그냥 요것 생각하고 저것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거를 표현하자면, 돈 한 가지만 가지면 전부 살 수 있는 것을 왜 요것조것 걱정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모든 생활 자체가 바로 주인공에서 벌어졌다 줄어들었다 하는 고무줄과 같은 건데 말입니다. 거기다 맡겨서 체험을 하시고 그 맛을 꼭 보셔야 될 겁니다, 정말!

여기 온양에 계신 많은 분들이 몸 떨어지기 전에 이 도리를 공부하셔서 체험을 하고 돌아가신다면 요다음 생에는 나올 때 아마 그냥 키만 들고 나올 겁니다, 하하하. 오조 스님께서 "방아는 다 찧어졌느냐?" 하니까 육조 스님이 "찧어진 지 오랩니다만 키질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했답니다. 키질만 못했다는 거죠. 그렇듯이 여러분이 몸 떨어지기 전에 이 도리를 공부하신다면 다음 생에는 키만 들고 나올 거라 이겁니다. 뚜껑만 열면 다 되게끔 돼 있겠죠, 뭐. 거짓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한마음이 천백억화신으로 화해서 온 누리를 다 건질 때, 여러분의 한마음 공부 한 것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걸 알았을 때 여러분은 하늘을 보고 앙청하고 땅을 내려다보며 통곡을 하시겠죠. 이 소리는 절름발이가 절름발이를 면하고, 장님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보이지 않는 데 냄새를 맡게 되니까 모든 일체가 다…, 일체를 다 준대도 바꿀 수 없고 언어가 붙지도 않는 그것을 알게 되니까 아무 소리 못 하고 하늘을 보고 앙청을 하고 땅을 내려다보며 통곡하게 되는 거죠. 그 앙청하는 소리가 우주 천체를 울릴 수 있다, 범종이 울리듯 말입니다. 그 앙청하는 소리는 보이지 않는 데 중생들이나 보이는 데 중생들이 다, 자기는 모르고 있는데 다 듣고 있다는 얘기죠. (중략)

그러니까 그저 말로 이해타산을 하고 요것조것 따지고 그러지 마세요. 자기가 자길 믿는데 무슨 이해타산이 들어갑니까? 무슨 따지는 마음이 들어갑니까? 똥이 마려워서 변소간에 들어갈 때도 이해타산이 있겠습니까? '내가 똥을 눠야 될까, 안 눠야 될까?' 하고 말입니다.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데도 이해타산이 들어갈까요? '요걸 먹어야 옳을까, 안 먹어야 옳을까?' 하고요. 이해타산은 절대 하지 말고 그냥 믿고, 똥 마려우면 변소간에 가서 화닥닥 그냥 시원하게 눠 버리는 거와 같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써 끝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2년 5월 20일 국내지원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코로나 이후 법회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일 정 2022년 8월 24일(수) ~ 26일(금),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육비 20만원(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온라인법회 운영과 컨텐츠 제작 및 사례
- 마음과 과학

	1일차 (8월 24일, 수)	2일차 (8월 25일, 목)	3일차 (8월 26일, 금)
09:00~12:00		수행과 포교의 연계성 '원리와 사례'	현대인을 위한 포교
14:00~17:00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생활 속의 마음공부 '실천중심 방법론'	
18:30~20:30	불교 속의 과학 과학 속의 불교	뉴노멀 시대 온라인 법회 활용 방안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 현불 논단 |

국가유산 명칭 변경 재고해야

김형중
前 동대부여고 교장



문화재→국가유산 변경 본격화
문화재청, 하반기에 개선 추진
"日잔재, 재화 의미 강해" 이유

전통 · 근대유산으로 양분화돼
유산도 '재화' 의미 강한 단어
비용 들여 명칭 바꿔야 하는가

우리 불교가 이웃 서양종교에 앞서는 부분은 역사와 전통 그리고 문화재다. 중 ·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분리되면서 불교는 고대 · 중세 역사의 중심이 되고, 근현대 역사에서 소외됐다.

불교문화재가 국보와 보물의 70%를 차지한다. 불교가 자랑하는 민족 문화의 금자탑이다. 일제는 1943년 보물 340건을 포함해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하였다. 해방 후 정부는 1955년 북한에 있는 보물을 제외하고 모두 국보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여 국보를 다시 국보와 보물로 나누어 지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난 4월 11일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청에 '문화재(文化財)'의 명칭을 '국가유산(遺產)'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개선안을 전달했고, 문화재청은 올해 하반기까지 국회에 개선안을 제출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조속히 통과시킬 계획임을 발표했다.

명칭을 변경하는 이유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60년 동안 불러온 '문화재'란 명칭이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모방한 것으로 유네스코와 국제사회의 유산분류체제와 상이(相異)하기 때문이다. 일본과 한국은 상위분류(근거법령)에서 '문화재'의 명칭을 사용하고, 중국은 '문물(文物)', 영국은 '동산문화재와 부동산문화재', 프랑스는 '유산'이라고 표기한다. 자연물(천연기념물), 명승(경관), 사람(무형문화재)을 문화재로 지칭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지적이다. 또 문화재는 용어가 과거 유물의 재화(財貨)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2002년 문화재청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일제강점기 이후 근대에 생성 건축된 유물과 유적을 '국가등록문화재(1호-800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대부분이 교회와 미션학교 건축물이다.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되면 불교문화재는 국사 교과서에서처럼 불교문화재는 전통국가유산이 되고, 새로 지정된 국가등록문화재는 근대국가유산으로 분류될지도 모른다.

중국과 일본 등 동양의 국가에서는 '문화재'의 명칭을 가지고 우리처럼 문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 38건으로 1위이고, 일본이 2위, 우리나라가 21건이 지정돼 세계 3위이다. 불교 무형문화재는 영산재에 이어 2020년에 연등회가 지정됐다. 세계기록문화유산이 3위까지 등록된 문화 강국이다.

문화재의 명칭을 변경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문화재'가 재화의 수단이 되는 재산의 의미가 있어서 불경스럽다고 하는데, 오히려 '국가유산(國家遺產)'은 더 재산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국어사전에 보면 유산(遺產)은 "죽은 사람이 남겨 놓은 재산", 유산(有產)은 "재산이 많이 있음"이라고 하였다.

문화재청이 모든 국민이 잘 사용하는 '문화재' 용어를 엄청난 혼란과 비용을 지불하면서 변경해야하는지 저의를 이해할 수가 없다. 소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래도 변경해야 한다면 '국가유산' 보다는 '국가문화유산'이란 용어가 문화민족의 자긍심과 문화재를 인식하고 이해하기가 더 쉽다고 본다.

독일의 언어철학자인 훔볼트는 "우리는 언어가 보여주는 대로 현실을 인식한다"고 주장하였다. 언어가 인간의 사유와 존재를 규정한다. 모든 사물은 명칭 즉, 이름이 있다.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서 쉽게 그 사물을 이해하고 기억한다. 명실(名實)이 상부(相符)한다는 말이 이름과 사물의 실제가 서로 잘 합당하다는 뜻이다.

社 說

'연등회' 관심 고조, 포교로 잇자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가 온라인상 높은 호응을 얻었다. 2019년 사상 최다 인원 참여 후 3년만에 열린 만큼 검색량에서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눈에 띄는 관심을 받았다. 구글트렌드와 네이버데이터랩 등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하여 연등회가 취소된 2021년 대비 약 5배가 넘는 검색량 증가를 보였다. 여기에 SNS상에서도 언택트 연등회에 대한 긍정적 반응도 2021년에 비해 높은 87%를 기록했다.

3년 만의 연등회 개최로 부처님오신날에 대한 관심도 증폭됐다. SNS 상에서는 리오프닝 시기에 맞게 서울 볼거리와 함께 연등회를 소개하거나 부처님오신날 사찰을 함께 찾을 수 있는 여행을 소개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온 상태다.

불교계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법회 및 기도 중단과 연등회 취소라는 사실상 종교활동을 제한하는 정부 지침을 따랐다. 이에 관련해 불교계 내부에서는 이러한 종교활동 제한이 신행, 수행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교세 악화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해왔다.

이번 연등회 개최와 이에 따른 대중들의 반응, 그리고 부처님오신날에 대한 관심 증가를 허투루 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시 불교에 대한 관심으로 잇는 작업을 해야 한다.

불교계는 산사음악회와 개산대재 등을 통해 일반인들을 사찰로 오게 하는 문화전법 포교를 진행해왔다. 리오프닝 시기 사찰이 보다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더욱 친밀감 있게 대중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인터넷 상에서의 검색과 글 등의 증가에 맞춰 보다 적극적인 불교에 대한 인터넷 홍보 등이 필요한 때다.

'리오프닝' 템플스테이, 활성화 기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춤했던 템플스테이가 다시 활기를 띄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올해가 운영 20주년을 맞는 해여서 더욱 더 반갑다. 특히 템플스테이 운영 기관인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사회공익 템플스테이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한다.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20주년을 맞아 알리는 특별템플스테이인 '같이나눔 템플스테이'다. '같이나눔 템플스테이'는 템플스테이와 동갑내기인 2002년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무살 맞이 템플스테이'와 부모님과 함께하는 라떼 템플스테이'로 진행된다. 경쟁에 지친 젊은이들을 위로하고 세대 갈등 해소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또한 만65세 이상 어르신,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보호시설아동,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더하기 템플스테이'도 12월까지 계속 이뤄진다.

외국인 템플스테이도 오랜만에 활발해졌다. 특히 유관기관과 협력해 이뤄지는 외국인 단체 템플스테이가 활기를 띄고 있다. 5월 3~4일 순천시와 함께 개최한 '송광사 템플스테이+지역 명소 탐방' 프로그램이 이를 잘 보여준다. 템플스테이와 함께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등 지역 명소를 함께 둘러 본 해당 프로그램은 지역과 불교가 손을 잡고 시너지를 창출한 데 의미가 있다.

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 20주년을 맞아 사회공헌 사업 확대와 템플스테이 글로벌 브랜드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02년 33개 사찰에서 시작돼 현재 전국 143개 사찰에서 운영될 정도로 템플스테이는 명실상부한 한국전통문화 관광콘텐츠다. 리오프닝이 시작된 올해, 템플스테이가 글로벌 브랜드로 발돋움하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



송마나의
시절인연

마음 속 꽃을 피우길

5월의 산은 엽록소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고, 강물은 기쁨에 겨워 파란 윤슬(햇빛이나 달빛에 비치어 반짝이는 잔물결)로 빛난다. 세상은 싱싱한 설렘으로 혼곤한 봄을 깨운다. 사람들은 부산하게 일어나 교외로 나가느라 휴일의 고속도로는 몸살을 앓는다. 철쭉이 만개한 산등선이나 청보리가 넘실거리는 들판은 출근길의 만원 지하철 안처럼 북새통을 이룬다.

이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환호하는 사람들을 관광객이라 한다. 그렇다면 관광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느낄까? 관광객(觀光客)이란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보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이다.

'관(觀)'자는 '황새 雚(관)'자와 '볼 見(견)'자가 결합한 모습이고, '雚(관)'자는 '새(隹)'가 커다란 두 눈을 갖고 있는 형상이다. 즉 관(觀)자는 황새가 나무 위에 올라가 사물을 두루 꿰뚫어 본다는 뜻이다.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자꾸 보아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생·각(生·覺)을 얻게 된다. '생각'이란 단어에서 생(生)은 나온다는 뜻이고, 각(覺)은 깨닫는다는 의미가 아닌가.



그림 · 최주현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나는 생각한다'는 것이 생성이고, '나 있음'이 존재다. 생각을 일으켜야 존재가 된다는 것인가. 생성이 존재고, 생각이 존재다.

생각하면 할수록 생각은 깊어지고, 깊게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면 빛(光)을 보게 된다. 관광(觀光)이란 진리의 빛을 보는 것. 본질을 꿰뚫어 보아 각(覺)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내가 나 있음, 나를 볼 수 있는 자각(自覺)을 하게 된다. 깨달음이란 보는 것, 진리가 눈동자에 있다는 정법안장(正法眼藏)이다.

깨달음으로 이끄는 팔정도에도 정견(正見), 정사유(正思惟)가 들어 있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라고 한다. 우리가 숨을 멈출 수 없듯이 생각도 멈출 수 없다. 숨이 육체적 호흡이라면 생각은 정신적 호흡이다. 생각은 아무리 해도 걸리는 것이 없고, 장소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하는 바탕(性)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내 안에 불성(佛性)이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지친 몸을 이끌고 꼭 관광지를 찾아가야만 하는가? 산과 바다가 나에게 오도록 하면 어떨까. 내 마음속에서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다니게 하는 것이다.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은 연꽃 위에 앉아서 스스로 있는 것을 통찰하고 있다. 세상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꿰뚫어 보고 있다. 마음의 눈을 뜨면 내가 산이고 꽃이다. 생각을 깊이 하면 밖에 있는 관광지가 아니더라도 내 안에 있는 연화장의 세계를 볼 수 있으리라. 〈작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대표이사 : 혜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 광고국 (02)2004-8214, 8216 /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10-5640-8883 / 경남지사 : 010-3860-7008 /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구지사 : 010-2813-8008 / 영주지국 : 010-9373-3778 / 전북지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대한제지

불기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이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